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생님



Straumann Implant의 완벽주의와 만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치과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가장 소중한 Implant시술이기에 달라야 합니다.
SLA Surface, Non-Submerged시술, Syn-octa Abutment와
앞으로 공급될 SLActive Surface등 세계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Straumann Implant와 비아이를 선택하시는 순간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즐거움 치과생활

2006 Autumn / Winter



DENTAL
COMMON SENSE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과치료

Cover Story

건치방송인 노현정

고공산책

덕수궁 - 하늘을 향한 마음, 원구단

Seoul
Dental
Association



의치(틀니) 세정은 클리덴트-e에 맡기세요



치과의사 선생님, 지금 전화주세요!
 의치(틀니) 전문세정제 클리덴트-e를 의치 사용자에게 나눠 드릴 수 있도록 샘플을 보내드립니다.
 ☎ 920-8623



클리덴트-e의 분해효소와 세정성분이 음식물 찌꺼기는 물론, 세균과 냄새까지 말끔히 제거해 줍니다

- 단백질 분해효소와 세정성분이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
- 천연 구취제거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의치의 냄새 제거
- 의치성구내염·구취의 원인이 되는 세균 제거

제품문의 02) 920-8623

의치(틀니)세정제
클리덴트[®]
 발포정
 의치와 잇몸사이의 틈을 메워주는 의치접착제

1회 1정 5분이면 OK!

세계적인 명품 치아

TESCERA ATL Indirect Resin System



TESCERA™ ATL™

Aqua, Thermal, Light Indirect Composite Restorative System

www.biscoasia.com



대표전화: 02) 2026-2121, 080-799-2121

테세라는 전세계 치과의사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인공치아의 대표브랜드입니다.



Contents

2006 Autumn & Winter
Vol. 143



14



22



28

즐거운 치과생활

- 12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연혁
- 13 인사말
- 14 Cover Story
건치방송인 노현정
- 16 2006 건치노인
- 17 2006 건치자모
- 18 2006 건치아동
- 19 재미있는 치과 이야기 I
- 20 재미있는 치과 이야기 II
- 22 고궁산책
德壽宮 - 하늘을 향한 마음, 원구단
- 28 樂美笑 - 구로건강복지센터
주말장애인치과진료소
- 32 심미치료 - 치아미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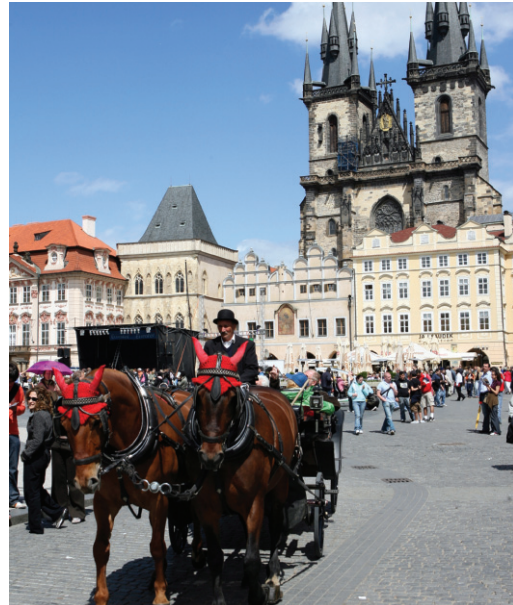


woi Jewelry / Craft

저희 '월'은 전문적 보석 장신구를 제작하는 SHOP으로서
개성있는 디자인과 높은 품질의 제품으로 귀하를 만족드리고자 노력합니다.
175-28, Nonhyeon-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 02 547 6007

Contents

2006 Autumn & Winter
Vol. 143



36



42



58

즐거운 치과생활

- 36 World Tour-프라하
- 42 Culture Column-신비로운 곤충의 세계
- 46 치과상식-임플란트
- 56 Old Story-옛 사람들의 치아관리
- 58 Culture Column-재즈댄스 동호회
- 60 전신질환과 치과치료-구강건조증
- 64 Food Choice-치아건강에 좋은 식품
- 66 자일리톨
- 68 Health Life-가을, 겨울 건강관리
- 70 올바른 치과상식
- 74 시민과 함께-Photo News
- 77 Dental News
- 78 편집후기
- 79 Editor's Note



명품은 명품을 가장 빛나게
하는 곳에서 만나십시오



폭스바겐 명품관으로 오십시오
명품은 명품을 가장 빛나게 하는 곳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페이톤부터 투아렉까지, 명품 폭스바겐을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럭셔리 쇼룸
구매와 A/S, 부품교체까지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는 3S*시스템 -
지금 당신이 선택한 폭스바겐을 가장 빛나게 할 클래스 오토를 만나십시오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폭스바겐 명품관, 클래스 오토

*3S 서비스 시스템이란?
판매(Sales), 서비스(Service), 그리고 부품(Spare Parts)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클래스오토만의 섬세하고 철저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Aus Liebe zum Automobil

Your Volkswagen Partner
Klasse Auto www.klasseauto.net

압구정 전시장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2-2 / Tel 02.512.0040
역 삼 전시장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1-13 / Tel 02.553.6733
압구정 서비스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2-2 / Tel 02.516.0070
일 산 전시장/서비스 : 9월 오픈예정 / Tel 031.904.4400



차종 및 표준 연비 : ■ Phaeton V6 3.0 TDI (자동6단 토틀로닉, 2967cc, 2471kg, 연비-9.5km/l, 7군, 1등급) ■ Phaeton V6 3.2 (자동6단 토틀로닉, 3189cc, 2312kg, 연비-7.2km/l, 8군, 3등급)
■ Phaeton V8 4.2 (자동6단 토틀로닉, 4172cc, 2281kg, 연비 및 등급 미정) ■ Phaeton W12 6.0 (자동5단 토틀로닉, 5998cc, 2449kg, 연비-5.8km/l, 8군, 4등급)

HISTORY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연혁

- 1925** 경성치과의학교 제 1회 졸업생이 배출돼 함석태·안중서·김용진·최영식·박준영·조동철·김연권 등 7인이 친목단체 성격의 한성치과의사회(회장 함석태)를 조직함.
- 1942** 조선총독부의 방침에 따라 한국인만으로 조직되었던 한성치과의사회는 10월 1일 일본인 중심으로 조직됐던 경성치과의사회와 통합,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으며, 그 명칭도 경성치과의사회로 부르게 되었음.
- 1945** 해방 후 순수한 한국인으로만 회를 운영하여 오다가 12월 16일 명칭을 한성치과의사회로 개칭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음.
- 1946** 12월 22일 회 명칭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용진)' 로 개칭함.
- 1952** 당시 국민의료법 제 5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가 설립되고 5월 18일 제 1회 정기총회(창립총회)를 개최함.
- 1953** 1945년 해방 후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무의촌을 순회하며 구강검사 및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이 행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6월 9일을 기해 구강보건주간을 설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 1958** 본회 기관지 '치과회보' 창간.
- 1960** 11월 4일 종로구 낙원동에 소재한 치협회관에 본회 사무국을 개설함.
- 1971** 치협이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회관을 신축, 이전함에 따라 본회도 함께 이전함.
- 1987** 본회에서는 매년 구강보건행사 기간(6월 9~15일 : 1주일간)을 맞이하여 각종 시상식 행사와 계몽활동을 전개함. 특히 87년부터는 '치과문화제전'을 신설했으며 치과의사와 국민들간의 용화를 다짐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제 1회 치과인문화제'를 세종문화회관 전시장에서 개최함.
- 1990** '치과회보'의 내용을 개편하여 환자와 함께 보는 '즐거운 치과생활'을 매월 1회씩 발행하게 되었음.
- 1993** 치협에서 현재 위치한 성동구 송정동 소재 현 회관의 구입을 결정함에 따라 본회에서는 이와 관련, 12월 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현 회관으로 입주하기로 결정함. 9월 본회 기관지 '서치뉴스'를 창간하였고 공보처의 인가(94년 10월)를 받아 매월 2회씩 발행함.
- 1994** 12월 6일 성동구 송정동 소재 현 회관으로 이전입주함.
- 1996**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사(70년사) 및 서울치과지도(Dental Atlas)를 발간함. 소년·소녀가장 무료진료 결연사업을 대국민 봉사 역점사업으로 추진함. '즐거운 치과생활' 매년 1회씩 개편호 발간.
- 1997** 서울시치과의사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www.sda.or.kr]
- 2000** 9월 본회 기관지를 '서치신문'으로 변경하고 격주로 발행함.
- 2001** 6월 제 1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Seoul International Dental Exhibition 2001) 개최.
- 2003** 1월 본회 기관지를 '치과신문'으로 변경하고 4월 전국배포를 실시함. 6월 구강보건주간을 맞아 장애인과 함께 하는 시민견기대회와 제 2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Seoul International Dental Exhibition 2003) 개최.
- 2004** 6월 제 2회 장애인과 함께 하는 시민견기대회 개최.
- 2004** 10월 제 5회 치과인 문화제 개최.
- 2006** 6월 치아의 날 기념 '치아사랑 시민견기대회'와 제 4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Seoul International Dental Exhibition 2006) 개최.
- 2006** 올해로 창립 81돌을 맞는 본회는 산하에 25개 구회가 있으며, 3,900여명의 회원이 있음.

2006년 통권 14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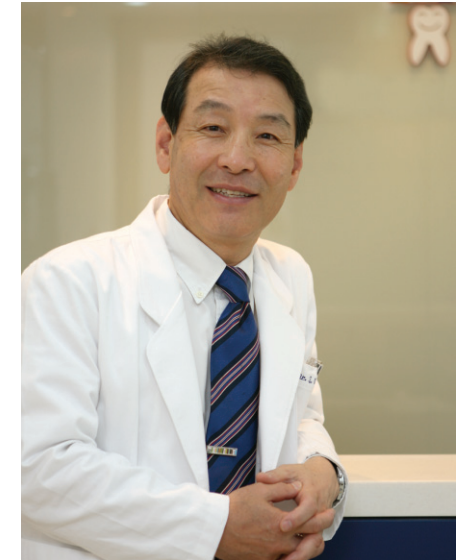
발행처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81-7
(우133-837)
Tel / 02-498-9142~6
Fax / 02-498-9147
Homepage / www.sda.or.kr
E-mail / news@sda.or.kr

발행인 김성욱
편집인 최영림
공보위원 최병갑 / 장세영
윤은희 / 장정미
편집부 최학주 / 김영희 / 안유정
유희섭 / 양주희

광고 신동언 / 송재창 Tel / 02-498-9142
제작 리즈디자인 Tel / 02-3462-5554
인쇄 (주)서진인쇄

즐거운 치과생활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REETING



치과의사와 환자가 함께 보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교양정보지 '즐거운 치과생활'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3천9백여 회원과 시민들의 가교역할을 해온 '즐거운 치과생활'은 다양한 치과 정보와 읽을거리로 치과병원 대기실의 필독서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 2회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그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웰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사는 법, 그 시작은 치아 건강에 있습니다. 예로부터 오복 중 하나로 중시 되어온 치아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건강한 치아가 고른 영양섭취의 기본이자, 발음·심미적 기능을 완성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국민 구강보건의 수호자 치과의사들의 힘을 모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장애인 구강건강권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 회원이 적극 동참하고 있는 저소득층노인 무료틀니사업 등 이웃사랑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모쪼록 '즐거운 치과생활'이 시민 여러분과 치과의사들 사이에 벽을 허물고,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치과계에 대한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소중한 한 권의 책을 위해 노력해주신 최영림 편집인을 비롯한 공보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김성욱



건치방송인 노현정



얼음공주 노현정, “아껴둔 웃음 뒤편 건강 치아 비결이”

노현정 아나운서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뽑은 2006 건치 방송인으로 선정됐다. 단아하고 지적인 이미지로 뉴스와 예능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노현정 아나운서를 오늘은 ‘치과’에서 만났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차가현 홍보이사, 최영림 편집인과 자리를 함께 한 노현정 아나운서는 ‘얼음공주’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시종일관 밝고 맑고 환한 웃음으로 주위를 밝게 해주었다. 그녀와 함께 한 치아사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INTERVIEW

“하얀색, 그리고 두려움?”

‘치과’ 하면 막연한 두려움이 먼저 떠올랐다는 노현정 아나운서. 똑 부러지는 외모와는 달리 그녀에게도 치과는 가깝고도 먼 곳이었나 보다.

“요즘엔 친절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치과가 많아 치과를 찾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죠”라며 웃어 보이는 그녀에게 이제 공식적인 건치방송인이 됐으니 어느 치과에서도 즐겁게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바람을 전해본다.

치과의사도 부러워한 건치 비결은 ‘정기검진’

‘시민과 함께 하는 치아사랑 시민견기대회’에서 노현정 아나운서를 직접 만난 치과의사들에게도 그녀의 건강치아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건치방송인으로 선정된 비결이 무엇이나”는 물음에 “특별히 소개해 드릴 방법은 없어요. 그저 3·3·3 원칙을 지킨 칫솔질, 정기적인 스케일링 등 평소 관리 습관이 몸에 밴 덕분 아닐까요?” 한다. 건강한 치아에서 나오는 자신 있는 미소. 그녀의 건치 비결은 바로 ‘정기적인 구강 관리’에 있었다.

“치과를 정해두고 다니지는 않지만 정기검진을 통해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생활 속 습관이 큰 도움이 된 것. 가장 중요한 치아관리 원칙을 성실히 지키고 있는 습관이야말로 건치방송인의 첫째 조건이 아닐까.

“건강한 치아는 방송활동에도 큰 보탬이 됩니다”



“작년에 김보민 아나운서가 건치방송인으로 선정됐었죠. 그래서인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아나운서들도 건치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편입니다. 고르고, 하얀 치아는 방송에도 분명 도움이 되죠” 브라운관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아나운서, 방송을 통해 만나는 시청자들에게 자신 있게 다가설 수 있는 미소를 지니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녀는 “올해는 제가 선정된 만큼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치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건치 방송인으로 선정된 후 주위로부터 “치아가 그렇게 예쁘고 건강했느냐”는 궁금증과 “오복 중의 하나라는 치아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 좋겠다”는 부러움을 사고 있다며 예쁘고 튼튼한 치아로 의미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모님께 감사함을 전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친근한 아나운서로

KBS 뉴스를 비롯해 상상플러스, 스타골든벨 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사랑받고 있는 그녀는 올 상반기 어느 해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다. 아침뉴스, 월드컵방송, 고정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이미지로 만날 수 있었다. 방송에서 보이는 차가운 말투와 단정한 자세로 ‘얼음공주’라는 애칭이 따라다니는 아나운서이지만 가까이 마주앉은 인터뷰 자리에서 만난 그녀는 순수하고, 진솔하며, 예의바른 여성이었다. 2006 건치방송인답게 희고 고른 치아를 드러내며 수줍은 미소를 짓는 그녀. 결혼 후 잠시 휴직기를 가질 것으로 전해진 노현정 아나운서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해 본다. **김**

진행 | 최영림 글 | 김영희 사진 | 한제훈

2006 건치노인 건강 100세는 건강한 치아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그동안 진행해오던 건치자모·건치아동 선발대회에 2006년 처음으로 건치노인 선발대회를 함께 개최했다. 서울시내 노인들에게 구강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노년기의 치아건강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치주상태와 치열이 양호하고 의치 및 보철을 장착하지 않은 노인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1회 건치노인 선발대회 금상을 수상한 이용선(80) 씨, 은상과 동상 수상자 장애석(76) 씨, 윤정임(73) 씨를 만나 평소 치아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골고루 잘 먹고 칫솔질도 꼼꼼히!



금상 이용선



은상 장애석



동상 윤정임

Q. 건치노인 선발대회에는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나요?

이용선(이하 이): 구청 노인회에 들렀다가 마침 건치노인 선발대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치아 검사도 받을겸 참가하게 되었다.

장애석(이하 장): 노인회성동지구에서 “회장님은 틀니도 없으니 신청해보세요”라고 권유해 참여하게 되었다.

윤정임(이하 윤): 검사 한 번 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참여했다가 뜻밖에 큰 상까지 받게됐다.

Q. 건치노인으로 선정된 소감은?

이: 우리 집에 큰 경사라고 애들이 더 좋아하더라. 시상식에서 찍은 사진과 상장은 볼수록 기분이 좋다.

장: 상금 톱 제대로 냈지. 며느리한테 외식하라고 용돈도 주고.

윤: 평생 서울대 치과병원에 한 번 가본 적도 없는데 거기도 가보고 영광이었다. 생각지 못한 상금까지 받아 더 좋았다.

Q. 평소 치아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 특별한 관리라기보다 하루에 세 번 칫솔질은 반드시 지킨다.

장: 칫솔질을 꼭 잊지 않고 한다. 잇몸이랑 혀도 꼼꼼히 닦아준다.

윤: 제일 기본은 칫솔질. 나이 들면 설태가 자주 끼는데 깨끗하게 닦으려고 노력한다.

Q. 어떤 음식을 즐겨 드세요?

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딱딱한 음식은 피하는 편이다. 이번에 금상 받고 나서 백 살까지 건치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더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

장 & 윤: 아무거나 잘 먹는다. 이가 튼튼한데 무슨 걱정이야(웃음).

이번 대회에서 상을 받은 건치노인들의 공통점은 올바른 칫솔질의 기본 3·3·3 원칙을 잘 지켜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건강 100세는 바로 치아 관리부터임을 몸소 실천하시는 수상자 세 분이,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기원해 본다. 글 | 양주희 사진 | 이종민

2006 건치자모·건치아동 선발대회에서 건치자모 오복상을 수상한 김영희(모)씨와 이승민(녀) 어린이. 우연히 구강 검사 기회를 접하고 참여하게 되었다는 김영희 씨는 1등상인 오복상까지 받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미소지었다.

예쁜장한 얼굴에 하얗고 고른 치아를 가진 승민이 엄마 김영희 씨는 기본적으로 아침저녁 칫솔질을 꼼꼼히 챙긴다. 특히 잠들기 전에는 혀도 깨끗이 닦도록 한다. 평소 다니던 치과에서 잇몸 마사지와 구석구석 닦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승민이 뿐 아니라 온 가족이 올바른 칫솔질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린이용 치약은 너무 달고 양치를 해도 개운하기보다는 텁텁한 것 같아요. 기호성은 좋을지 몰라도 양치 효과는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대신 꼼꼼하게 닦도록 합니다. 요즘은 유치원에서도 점심을 먹고 나면 꼬박꼬박 칫솔질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루 세 번을 지키고 있어요.”

최근 치과에 갔던 승민이는 영구치가 나기 시작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인다는 김영희 씨. 치아관리에 있어서 칫솔질은 물론 식습관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온 가족이 될 수 있으면 단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2006 건치자모 오복상 이승민·김영희 자모

“저희 집에서는 청량음료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평소 제가 녹차나 등글레, 결명자, 오미자를 끓여두기 때문에 남편도 아이도 자연스럽게 차나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있어요. 이런 습관이 건치 비결 아닐까요?”

김영희 씨는 “건치자모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치아관리를 더 잘 해 주위 사람들에게 건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다”는 말로 수상 소감을 대신 했다. 글 | 양주희 사진 | 이종민


환한 미소, 고른 이 우리는 건치아동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라면 어릴 때부터 치아관리가 중요하다.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치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는 건치아동 선발대회에서 금상을 받은 손용빈, 정재연 두 어린이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을까?

학교 대표 건치아동으로 뽑혀 구 대표로 참여하게 된 두 어린이의 평소 치아 관리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식사 후 곧바로 칫솔질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물로 입안을 2~3번 정도 양치해 주는 것. “치아건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손용빈 어린이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3·3·3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급적 과자나 탄산음료를 먹지 않고 간식을 먹은 후에는 꼭 입안을 헹구도록 배웠고, 또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치아동 금상에 선발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는 두 어린이는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습관을 익혀준 부모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저희 엄마도 아직 충치 하나 없으시거든요. 제가 건강한 치아로 상까지 받게 된 건 모두 엄마 덕분이죠. 치아가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저와 동생의 치아에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는 부모님, 감사합니다.”(손용빈)

“어렸을 적부터 단 음식을 멀리 했고, 칫솔질을 하루에 세 번씩 잊지 않고 해 왔던 습관이 금상을 받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항상 바른 칫솔질을 하라고 말씀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려요.”(정재연)

식생활의 변화로 충치이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치아의 소중함과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열리는 건치아동 선발대회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이 앞으로도 건강한 치아, 밝은 미소를 간직하길 기대해 본다. 

글 | 양주희 사진 | 이종민



2006 건치아동 금상 정재연, 손용빈 어린이

이스토리~ 齒스토리~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에는 '상대방을 때려 이를 빠지게 하면 그의 이도 뺏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기원전 1천5백년 경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이집트의 고문서 파피루스에도 '나무의 열매 가루와 부싯돌 가루 등을 꿀에 섞어서 치약 대용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대부터 치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의 갖가지 기록 속에서 등장하는 치아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제 9대 임금 성종이 충치로 고생을 많이 했던 터라 신하가 죽으면 그 유족들에게 반드시 치아보호제 역할을 했던 유향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제 4대 황제인 표트르 1세는 치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황제였다. 그는 충치 때문에 고생하는 신하를 보면 무조건 불려서 이를 빼곤 했는데 물론 자신은 최신의 유럽의학을 시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치의학에 근거한 이론 없이 무작정 이를 뽑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히 심했다. 왕의 그릇된 지식으로 인해 고생하던 신하들은 왕 앞에서는 절대로 이가 아프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프랑스 소설 레미제라블에서도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앞니 두 개를 40프랑에 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학 작품 속에서 치아와 관련된 내용을 찾기도 그리 어렵지 않다.


프랑스 루이 14세의 주치의는 '인간의 몸 중에서 치아가 가장 위험한 질병의 원인'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으로 결국 루이 14세의 멸절한 이를 모두 뽑아 버렸다.

루이 14세는 평소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대식가여서 보통 60가지가 넘는 음식이 나왔고, 새로운 음식을 먹기 위해 일부러 먹은 음식을 토해내기도 했다. 이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식습



관은 바뀌지 않았고, 궁중요리사들은 왕을 위한 특별 요리를 만들어내느라 고심했다. 그는 급기야 어리석은 주치의의 권고에 따라 입천장을 제거하고 구멍을 뚫어 코까지 연결시키는 수술을 했고, 이 때문에 국민들은 루이 14세가 음료수를 마시면 곧바로 코로 흘러내리는 묘기(?)를 감상할 수 있었다. 주치의는 인간의 장이 텅 비어 있어야 건강해진다고 왕에게 항상 독한 설사약을 처방했고, 이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식행사 때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 치아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이 만들어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치아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개인의 잘못된 관념이나 편견이 불러 일으키는 과장이 엄청나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대적 문제로 치부할 수만도 없다. 병에 대해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서도 꽤 많은 편이다.

정확한 지식과 치료 기술을 가진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만이 치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명한 대안일 것이다. 

글 | 양주희

속담 속의 치아

충치나 잇몸병이 없는 사람을 두고 흔히 “오복 중 하나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 그만큼 치아건강이 일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뜻이다. 하지만 타고난 치아건강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쉽사리 잃게 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도 꼭 새겨야 할 덕목. 속담에 등장하는 치아 이야기를 통해 치아건강의 중요성, 관리의 필요성을 되짚어 본다.

글 | 양주희

俗談

고수머리 옥니박이하고는 말도 말랬다

고수머리(곱슬머리)인 사람과 옥니박이는 남달리 인색하거나 각박하니 상대하지 말라는 말이다. 고수머리의 고집은 잘 모르겠지만 옥니는 치과 치료를 받으면 해결된다. 치아의 모양과 성격의 상관 관계는 아직은 ‘글썸~’이다.

알던 이 빠진 것 같다

걱정거리가 없어져 후련하다는 말이다. 아픈 이를 빼는 것은 후련한 일임에 틀림 없다. 하지만 이제는 이가 빠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까? 하나가 빠져나가면 치열이 흔들리고, 빠진 자리의 세균 감염도 걱정이다. 치과의사의 조언이 필요할 때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있던 것이 없어져서 불편하기는 하나, 그래도 참고 버틸 수 있다고 할 때에 쓰는 말이다. 하지만 치아를 뺀 후 4~6주 정도 지나고 나면 새로운 보철물로 보안을 해주어야 한다. 만약 보안을 하지 않으면 인접 치아나 맞물리는 치아가 빈 공간으로 쏠리게 되어 치열이 무너지고 치아가 마모되며, 음식물이 끼고 충치나 치주 질환 등이 생기기 쉽다. 앞니인 경우 발음도 불분명해지고 잘 웃지 못할 수 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어금니가 빠진 경우에는 씹는 기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소화기능까지 약해져 치과 질환뿐 아니라 내과 질환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도 아니 나서 콩밥을 씹는다

재주와 힘이 없는 사람이 제 힘에도 버거운 일을 하려고 한다는 뜻이다. 무턱대고 자신의 능력에 부치는 일을 하려 한다는 말. 이가 생기기도 전에 씹지도 못할 것을 먹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다.

이가 자식보다 낫다

이가 없으면 음식을 마음대로 먹기 어렵기 때문에 치아건강의 중요성을 비유하는 말이다. 나이 들어서도 이가 튼튼해야 음식을 맛있게 먹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틀니나 임플란트 등을 시술한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소감일 것이다.

이 아픈 날 콩밥 한다

남이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을 모르고 더욱 곤경에 처하도록 함을 이르는 말이다. 치과 치료 후에는 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틀니를 사용하는 노인에게 딱딱한 마른 오징어를 권하는 무례는 절대 금물이다.

이에 신물이 돈다(난다)

어떤 일을 거둬 당하여 지쳤거나 싫증이 몹시 나서 지긋지긋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신물이 자주 올라올 경우 입냄새가 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내과적 질환뿐만 아니라 구강 검진을 통해 입속 문제점도 되짚어 봐야 한다.

두부 먹다 이 빠진다

마음 놓은 데서 실수가 생기니 항상 조심하라는 말이다. 뜻밖의 실수를 하였다든 뜻. 하지만 부드러운 두부는 치아가 부실하거나 틀니를 사용하는 노인들에게 치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적 측면에서 적당한 음식이기도 하다.

냉수 먹고 이 썩이기

실속은 없으면서 허세를 부린다는 뜻이다. 이 사이에 낀 이물질을 없애려고 한다면 이썩시개 대신 치실을 이용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지나친 이썩시개의 사용은 이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그 틈새로 이물질이 들어가 충치를 유발시킬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德壽宮

덕수궁은 童顔이다.
세월을 빗겨 서고,
시간을 잡아 놓는 ...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주무대이자 대한제국 황실의 독립운동 산실이었던 덕수궁. 경복궁처럼 웅장하지는 않지만 인왕산 줄기 아래 아기자기한 전각들이 오순도순 정감 있게 배치되어 자연스러운 경치를 자랑하며, 함녕전에서 석조전에 이르는 후원길을 따라 산책하기에 좋은 도심 속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봄이면 살구꽃, 수수꽃다리, 참꽃 등 수많은 꽃으로 화사하게 웃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으로 시원한 그늘을 선물하고,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과 붉은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겨울에는 하얀 은세계를 선물하는 덕수궁의 세월 속으로 함께 떠나보자.

준명당(좌) / 즉조당(우)



황궁우

덕수궁, 첫 이름을 짓다

1592년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의주로 피난 갔던 선조가 1년 반만에 한양으로 돌아왔으나, 한양의 모든 궁궐은 왜군에 의해 불타 없어져 머물 궁궐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황화방(皇華坊)에 위치한 월산대군 후손의 집과 인근의 민가 여러 채를 합하여 임시 행궁(行宮)으로 삼고 '시어소(時御所)'로 머물게 되었으니, 이것이 훗날 덕수궁[경운궁]의 시작이었다.

선조는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궁궐을 재건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608년 2월 승하하고 만다.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은 1611년 창덕궁을 재건하여, 그해 10월 창덕궁으로 이어(移御)하면서 이곳을 '경운궁(慶運宮)'이라 이름지었다. 병조판서 이항복을 시켜 경운궁의 담장을 두르고 궁궐로서의 면모를 가다듬은 것도 이 무렵의 일이다. 이후 1623년 인조반정의 성공으로 광해군을 폐위시킨 인조는 경운궁에 유폐되어 있던 인목대비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고, 경운궁 별당(즉조당 추정)에서 즉위한 뒤 인목대비를 모시



석어당

세종대왕 동상: 덕수궁 안뜰에 자리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총무로가 아닌 세종로에 세워진 것처럼 덕수궁과 세종대왕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하루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할 유물이기도 하다.

보루각 자격루: 조선 세종 16년(1434) 장영실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종과 징·북이 저절로 울리도록 한 물시계로, 현재 남아 있는 자격루는 중종 31년(1536)에 다시 제작한 자격루의 일부이다. 국보 229호.

홍천사종: 광명문 안에 걸려 있는 대종으로 조선 세조 7년(1461년) 태조고황제의 계후 신덕고황후 강씨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효령대군의 주장 하에 주조됨. 조선 초기 5대 대종 중 하나이기도 한 보물 1460호.



세종대왕 동상

홍천사종 / 보루각 자격루

고 창덕궁으로 이어하게 된다. 이때 인조는 선조가 머물던 즉조당과 석어당 두 곳만 남기고, 나머지 경운궁의 가옥과 대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뒤 경운궁을 아주 떠나게 된다. 이로써 경운궁은 왕이 공식적으로 머물며 국정업무를 보던 궁궐의 기능을 마감하였다.

영조 때 선조의 기일 3주갑(180년)을 맞아 경운궁 즉조당에서 추모 사배례(四拜禮)를 올리기도 하였고, 고종 30년(1893)에는 선조의 기일 5주갑(300년)을 맞아 고종이 세자(순종)와 함께 경운궁 즉조당에서 추모 사배례를 올렸다. 그 이후 1897년 고종이 다시 이곳으로 환어(還御)하기 전까지는 비어있게 된다.



석어당 뜰로 들어가는 문



중화전

덕수궁, 그 이름을 찾다

경운궁이 다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1895년 10월 경복궁에서 일본 왕의 사주에 의해 명성황후가 무참히 살해된 을미사변이 일어난 후부터이다. 을미사변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1896년 2월 세자(순종)와 함께 러시아공사관으로의 아관파천을 단행하였고 1년 뒤에 경운궁으로 환궁하게 된다. 당시 경운궁 주변 정동 일대가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양세력들의 근거지였던 만큼, 이를 이용해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였던 듯하다.

같은 해(1897년) 8월 고종은 연호(年號)를 광무(光武)로 반포(頒布)하고, 10월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정한 뒤 원구단(圓丘壇)에서 황제 즉위식을 갖는다. 이처럼 경운궁의 또 다른 역사는 대한제국의 선포와 더불어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시작되었다.

경운궁은 광무 황제가 본격적으로 임어하게 되면서 그에 걸맞은 궁궐의 격식을 갖추어 나갔지만, 1904년 4월 함녕전에서의 방화로 의심되는 대 화재로 인해 경운궁은 또 한 번 큰 시련을 겪게 된다. 중화전을 비롯한 중심부에 있던 건물들이 모두 잿더미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현재 석조전을 제외한 모든 건물들은 그 후에 재건되었으며, 규모도 대폭 축소되고 만다. 그러던 중 1905년 소위 역적 이완용에 의해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고, 이에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광무 황제의 헤이그 밀사 특명이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 황제는



석고

원구단 圓丘壇

하늘을 향한 마음을 담다

원구단이란, 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제천단으로 원단이라고도 한다. 하늘에 제사를 올린다는 것은 천자, 황제로서 권위를 세우고 기울어 가는 나라의 부흥을 꾀하려는 상징을 담고 있다. 쓰러져 가는 왕조의 불씨를 되살려 보려는 의지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화된 원구제는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 성종 때부터라고 전해진다. 조선 초기에는 제천의례를 억제했기 때문에 세조 때 원구제가 폐지되었다가 조선 대한제국이라 하고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여 천자가 제천의식을 봉행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원구단이 다시 설치되었다.

지금의 원구단은 1897년 광무(고종)의 황제 즉위식과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옛 남별궁 터에 원단을 만들어 조성한 단지였지만, 일제강점기 때 훼손 당해 지금은 소실되고 하늘과 땅의 신, 태조의 위패가 모셔진 황궁우와 석고만 남아 있다. 1899년에 축조된 3층 8각 지붕의 황궁우는 팔각형 기단에 화강암 장대석을 쌓고 돌난간이 둘러쳐 있으며 돌집승 조각이 섬엄히 경계하고 있다. 1902년 광무 황제 즉위 40주년을 기념해서 황궁우 옆에 세워진 석고(단돌북)는 몸통 둘레에 용 문양이 돌음으로 새겨 있으며 조선 말기 조각의 걸작 중 하나로 꼽힌다.

처음 조성된 단지는 1913년 일제에 의해 원구단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다음해 철도호텔이 들어서면서 축소되었으며, 지금은 황궁우와 석고 그리고 3개의 아치가 있는 석조 대문만이 보존되어 조선호텔 내에 남아 있다. 사진에 보이는 3층짜리 건물은 황궁우인데 이를 원구단으로 잘못 아는 사람이 많다. 원구단이 있었던 터는 일제에 의해 철거되고 지금은 조선호텔이 들어서 있다.



덕흥전 내부

知識

즉조당: 광해군과 인조의 즉위처로 임금의 집무처. 현판은 고종의 어필이다.

준명당: 신하와 사신의 접견처. 즉조당과 연결됨.

석어당: 선조임금의 추모처이자 인목대비 유폐처로 단청을 칠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중화전: 덕수궁의 정전으로 즉위식과 조회를 비롯한 주요 행사를 집행했던 곳.

덕흥전: 귀빈 접견처로 대한제국 문장인 황금 이화문이 잘 새겨져 있다.



황궁우



함녕전 안쪽



정관헌



석조전

함녕전: 광무 황제의 침전이자 승하처. 보물 820호.

정관헌: 서양식 휴식처로 광무 황제가 다과를 들며 쉬거나 외교관 연회처로 사용.

석조전: 대한제국 광무 황제의 집무실 및 접견실로 10년에 걸쳐 지은 서양식 3층 돌집. 2004년까지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사용됨.

대한문: 현 덕수궁 정문. 본래 大安門.

知識

강제 퇴위 되기에 이른다. 1907년 융희 황제가 즉위하고 경운궁에 계신 태황제인 광무 황제에게 ‘덕수(德壽)’라는 궁호(宮號)를 올리는데, 오늘날 덕수궁(德壽宮)이란 이름은 이렇게 얻게 되었다. 한편 ‘덕수’라는 궁호는 황제위를 물려준 ‘태황제의 덕과 장수를 기린다’는 뜻으로, 특정 고유명사로서가 아니라 물려난 태황제에게 올리는 궁호의 보통명사격인 셈이다. 1919년 광무 황제가 함녕전에서 갑자기 승하하고 나서 조직적인 독립 운동을 펼쳐나가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덕수궁은 일제에 의해 교묘히 훼손되기 시작했고 결국 주인 없는 궁궐이 되고 만다. 이 때문에 덕수궁은 전통적인 궁궐제도에 입각한 배치형식이나 자연 지세에 따른 자유로운 배치가 파괴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덕수궁의 전각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궁궐의 중심부가 밀집된 동남쪽에는 대한문을 비롯하여 중화전·함녕전·즉조당·석어당·준명당·정관헌 등과 정전·편전·침전·궐내각사 등이 있었다. 궁궐 서쪽으로는 미국 영사관과 러시아 공사관 사이에 서양식 2층 건물인 증명전 일대와 환벽정 등이 있어, 접견실·연회장 등으로 활용됐다. 북쪽은 선원전(璿源殿)과 혼전(魂殿)이 있던 지금의 舊경기여고터, 덕수초등학교 위치로 황실의 제사가 치러지던 곳이다.

광무 황제가 승하한 뒤 3년만에 일제는 창덕궁과 종묘를 훼손한 것처럼 덕수궁 돌담길을 뚫고 도로를 개설하고 학교, 방송궁 등을 지어 덕수궁을 절단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로써 덕수궁의 면적은 더욱 축소되고 본래의 모습은 점점 잃어간다. 대부분의 건물은 철거하거나 팔았으며, 흩어버린 덕수궁을 1933년 10월 공원으로 만들어 일반에게 공개하게 된다. 일제침략기를 거치면서 덕수궁은 대한제국기의 원형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창경궁이 복원된 것처럼 덕수궁도 대한제국 역사와 함께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이 외에 궁성 밖 서쪽 정동 10번지에는 광무 8년 4월에 경운궁에 불이 났을 때 광무 황제가 피하였던 수옥헌(嗽玉軒)이 있다. 1905년 11월 17일 한일조약을 체결한 장소이자, 1907년 7월 광무 황제가 헤이그 밀사를 파견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후에 전각(殿閣), 문루(門樓) 등이 헐린 사이사이에는 화단을 만들고 잔디와 작약, 모란 등을 심어 새로운 모습

으로 바뀌어갔고 1933년부터는 궁내를 일반에게 공개 관람하게 하여, 이제는 시민들이 산책하는 고궁으로 변하였다. 원래 황실의 귀빈 접대시 사용되던 석조전은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사용되면서 새로운 문화의 장소로 거듭났고, 최근 들어서는 매일 3회씩(월요일 제외) 펼쳐지는 ‘왕궁수문장교대의식’으로 인해 내외국인들의 필수 관광 명소가 되었다.

덕수궁, 그 이름을 지켜 뒤돌아보다

광무황제의 국장일인 1919년 3월 3일에 맞추어 미리 전국에서 올라온 백성들이 일제에 항거하며 대한문 앞 광장(현재 시청 앞 광장)에 모여 황제의 붕어를 애도하며 3.1만세 운동이 시작된 그곳. 지금도 그 정신이 살아 있어 대한문과 원구단 사이에서는 월드컵의 함성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궁’이란 이름으로 인간의 역사가 주는 슬픔과 아픔을 묵묵히 지켜보며 서있던 세월을 지나서, 덕수궁은 이제 전시관으로, 도심 직장인들의 점심 휴식처로, 어린 학생들의 역사 교육장으로 다시금 넓은 품을 허락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이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코 약하지 않고, 일부러 꾸미지 않았지만 스스로 향기를 내는 덕수궁의 넓은 품 안에서 근대 대한제국 황실의 처절했던 독립 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며 후대에까지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진행 | 양주희 사진 | 이종민

◆ 관람문의 02-771-9951 / www.deoksugung.go.kr



구로건강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2000년 창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독거노인 도시락배달사업 및 방문 진료를 비롯하여 아동건강지원사업, 가족지원상담실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 사단법인 구로건강복지센터와 구로구치과의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말장애인치과진료소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의 구강 보건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역의 장애인 구강 건강을 지켜보겠다는 열정 하나로 시작해 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는 치과진료소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들로 구성된 30여 명의 봉사후원회 회원들이 매주 무료 봉사를 하고 있다. 뜻있는 치과의사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된 봉사 활동이지만 실상 1·2급 장애인들을 치료하는 일이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다. 취재를 위해 지켜보는 중에도 그 어려움이 바로 느껴질 정도였다. 입도 제대로 벌리지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들이기에 일반인 진료보다 훨씬 더 힘이 든다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게 힘든 일을 주말까지 희생하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김정우 원장은 ‘그냥 하는 거죠. 봉사에 이유가 있나요?’ 라는 현답을 선사했다. 봉사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후원회원들의 마음이 진료소 곳곳에 녹아 있어서인지 일반 치과의원에서 진료받기 버거운 장애인들은 이제 주말이면 즐겁게 치과 진료소를 찾는다. 치과 진료가 시작되는 4시 30분경부터는 장애인 가족,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바빠진다. 주말마다 진행된 봉사 활동담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하다.

치과의사가 만드는 따뜻한 세상 구로건강복지센터 주말장애인치과진료소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문을 열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곳이 있다.
구로건강복지센터 내 주말장애인치과진료소가 바로 그곳이다.
후텁지근한 주말 오후, 구로구 가리봉동에 위치한 구로건강복지센터를 찾았다. 마음을 나누고 정성을 다하여 봉사를 하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바쁜 움직임에 발길이 멎었다.



사회복지사와 환자가족의 협조



“이곳에서는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우리 아이는 치과 가는 것 자체를 무서워했는데, 선생님들이 능숙하게 치료해 주시고 자원봉사자들이 차량으로 이동 봉사해 주시니 진료소 오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지요.”

몸이 불편한 아들을 데리고 주말마다 치과 진료소를 찾는다는 한 장애인 가족은 몇 차례 다녀보니 도움이 많이 되었다며 항상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진료소를 찾는 장애인 중 대부분은 이미 치아 손상이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보철이나 틀니 같은 경우도 비용, 관리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많아요. 구로구 치과의사회, H사 사회공헌팀, 치과위생사의 자원봉사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로 들어오는 후원회비로 부족하나마 보철과 틀니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역 사회의 관심과 후원이 있다면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일년 365일 열려 있는 진료센터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료소를 거쳐 간 사람들은 1,400여 명. 마음 좋은 아저씨처럼, 상냥한 이웃집 언니처럼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센터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에서 지역과 장애인 그리고 병원이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제 주말장애인치과진료소에서 ‘주말’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항상 열려있는 장애인치과진료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봉사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

奉仕


H사 ‘샘’의 차량이동자원봉사 회원 이범수 씨는 평소 봉사 활동에 관심을 갖다가 사내 봉사모임 ‘샘’을 통해 구로건강복지센터와 연결되어 주말장애인치과진료소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활동을 시작한 지 2년 가까이 된다는 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소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자발적으로 오세요. 처음엔 저 역시 잠깐 망설였죠. 비록 주말이지만 꾸준히 참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봉사 활동이고, 약속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해 열심히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H사 ‘샘’은 현재 30명 정도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매주 2인 1조로 순서를 정해 재가 장애인의 이동 및 진료소 운영에 참여해 봉사를 하고 있다. 직장인이다 보니 인사 이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활동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지만 진료소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 ‘샘’은 샘물이 우러나 그치지 않듯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리라는 뜻입니다. 저희의 작은 도움으로 장애인분들이 보다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언제까지 하겠다는 장담보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범수 씨. 그의 소망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활동했으면 하는 것이다.

소외된 장애인들의 건강을 돌보고 함께 나누는 일, ‘샘’과 같은 마음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진행 | 양주희 사진 | 이종민



하얀 치아를 원하세요?

이제 치의학은 치아우식 및 치주질환의 예방, 기능의 회복을 넘어 자기 모습을 아름답게 하려는 심미적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및 TV의 발달은 심미치료를 대한 환자의 기대치를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반인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심미치과 분야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치아미백은 성인의 심미치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술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윤은희 공보위원

치아미백이란?

치아미백이란 미백약제를 사용하여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고 치아를 희고 밝게 만들거나, 변색된 치아를 원래의 색으로 회복시켜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치료방법이다.



미백 전



미백 후

치아미백의 원리

치아의 겉표면은 상아질을 둘러싼 법랑질로 되어 있다. 이것은 무기질, 유기질,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유기질 때문에 투과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 외부의 물질이 치아 내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로 사용하는 미백제인 Carbamide peroxide는 구강 내에서 Hydrogen peroxide와 urea로 분해되고, Hydrogen peroxide는 산소를 방출하게 된다. 이 산소는 공기 중의 산소와는 달리 아주 반응성이 높아 치아 내로 침투해서 색이 진한 탄소 고리 화합물을 색이 밝은 사슬구조로 바꾼다.

치아변색의 원인

	변색의 원인	치료방법
외부요인	플라그, 음식찌꺼기	칫솔질, 스케일링
	박테리아성 착색	칫솔질, 스케일링
	치석	칫솔질, 스케일링
내부요인	연령 증가에 따른 변색	치아미백
	선천적, 유전적 변색	치아미백
	커피, 홍차, 색소를 포함한 음식, 흡연	치아미백
	테트라사이클린(8세 이전 투여)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불소 과잉 섭취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법랑질형성부전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치수괴사에 의한 변색	신경치료 후 치수강내 미백, 금도재관 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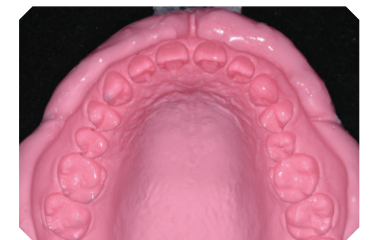
치아미백의 종류와 방법

1. 자가 치아미백 (home bleaching)

자신이 직접 미백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루 2시간 사용하는 방법과 밤에 잘 때 끼고 자는 방법이 있다. 치아착색의 정도에 따라 2~4주 정도 매일 또는 격일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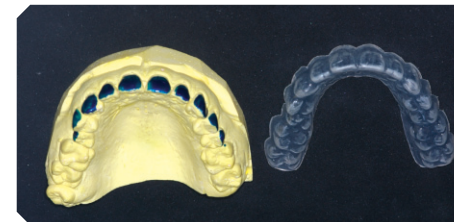
방법

1



처음 내원하면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후 치아의 본을 뜬다.

2



개인의 석고 모형이 제작되면 이 모형에 맞춰 정확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한다.

3



두 번째 내원하면 트레이가 잘 맞는 지 확인한 다음 트레이와 미백제를 환자에게 준다. 그리고 미백제를 사용하는 방법, 트레이를 착용하는 시간을 자세히 설명한다.

4



집에서 불소가 들어있지 않은 치약으로 칫솔질을 하고 필요하면 치실로 구강을 깨끗이 한다.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미백 트레이에 미백제를 적당량 짜 넣고 치아에 끼운다.

5



정해진 시간만큼 미백이 끝난 후 입안을 가볍게 물로 헹구고 미백 트레이를 깨끗이 씻어 보관통에 보관한다. 단, 미백 도중 이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담한다.

2. 전문가 치아미백 (office bleaching)

치과에서 시술하며 약제와 함께 열광원, 플라즈마 아크, 레이저 광원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자가미백과 병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 더 밝고 환한 치아를 원하는 환자, 자가미백으로 만족할 수 없는 분에게 권할 수 있다. 치아착색 정도에 따라 주 1~2회 시행된다.



방법

1

먼저 치아에 붙어있는 플라그나 이물질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소가 들어있지 않은 세마제로 치아를 연마하고 깨끗이 세척한다.



2

치아 표면을 건조시킨 후 잇몸을 분리하고 미백제를 치아표면에 바른다. 정해진 시간 후 깨끗이 씻어낸다. (자가 미백제와는 성분이 다르므로 치과의사의 지시에 잘 따라야 한다.)



3

강한 빛이나 열을 조사할 수도 있다.



치아미백 기간

자가 미백의 경우 보통 첫날 사용하면 앞니 절단면이 하얗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최대의 미백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2~4주 동안 계속 사용해야 한다. 전문가 미백 (office bleaching)의 경우 2~3회 치과를 방문해서 미백시술을 받아야 한다.

치아미백 중 나타나는 증상 및 주의사항

- 1 처음 미백 트레이를 끼고 있는 동안은 답답한 느낌과 함께 턱 부분이 빠근할 수 있다.
- 2 치아가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다. 심한 경우 미백 트레이에 불소겔을 사용하면 시린 증상이 완화된다. 또는 격일로 미백제를 사용하면 시린 증상이 감소한다.
- 3 순간적으로 잇몸이 따가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미백제 사용을 중단하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증상이다. 다만 잇몸염증이 있는 경우 스케일링 등 잇몸치료 후 미백을 시행해야 한다.
- 4 미백치료 중 또는 완료 후 3~4일까지는 미백이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불소가 들어있지 않은 치약을 사용하고 커피나 홍차, 콜라 등 색소를 포함한 음식이나 음료는 삼가하고 흡연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 5 하얀 치아와 구강의 청결 및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아미백 효과

미백을 한 치아는 미백하기 전보다 훨씬 하얗고 밝은 상태이다. 미백효과를 오래 지속하려면 커피, 콜라나 담배와 같은 착색물질을 가급적 자제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치과를 방문해서 스케일링 후 재미백(touch-up) 시술을 받으면 항상 희고 밝은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 재미백은 처음 미백보다 훨씬 짧고 간단한 시술로 가능하다.

사진제공 | 정운석, 김태영

프라하

낭만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중세의 숨결, 프라하

음악과 인형극, 작은 골목, 지붕 아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중세가 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거듭 침략을 받았지만, 싸우지 않고 지켜온 백담과
황금의 도시 프라하는 아름다운 고도를 잃지 않은 채 다시금 화려한 꽃으로 부활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주저 없이 프라하를 꼽는 사람이 많다.
상쾌한 하늘 아래 오래된 건축물, 노천 카페와 은은한 야경, 다리 난간에 기대어선 수많은 연인, 그리고 맥주 한 잔.
홀로, 혹은 누군가와 가더라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프라하이기 때문이다.





01



03



04



02

- 01. 체코의 블타바강은 독일어로 몰다우강, 영어로 도나우강으로 불린다. 강 건너 프라하성 성 비투스 대성당이 인상적이다.
- 02. 구시가 광장에는 매력적인 관광마차를 쉽게 만날 수 있다.
- 03. 프라하성 대통령궁저 옆의 성 십자가 예배당.
- 04. 구시청사 장치시계 앞에는 매 시각 벌어지는 이벤트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모인다.
- 05. 보행자 전용다리인 카렐교 위에는 노점과 거리공연이 즐비하며, 프라하에서 가장 활기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다양한 건축 양식의 향연

프라하의 매력은 무엇보다 도시의 건축물들이 풍기는 다양한 분위기다.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아르누보 양식에 이르기까지 훼손되지 않은 채 천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도시는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건축 박물관'이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이런 이유 있는 프라하의 아름다움은 빛 바랜 성이나 거리 한 켠의 작은 골목에서 살아 빛나는 것을 발견함을 옮길 때마다 느낄 수 있다.

말라스트라나의 북쪽 고지대는 흐라트차나라 불리는 성 지구다. 거대한 프라하성이 블타바강에 펼쳐져 있고, 그 서쪽에 옛날의 귀족 저택이 드문드문 서

있다. 19세기 말부터 예술가와 작가들이 즐겨 이 주변에 살았으며, 지금도 예술가들의 거주 지구로 유명하다. 9세기경 지어지기 시작한 프라하성은 시대별로 덧붙여진 각기 다른 양식의 건축물의 집합체로 지금은 대통령의 거주지로 사용된다. 동·서로 길게 뻗은 성안에는 궁전과 정원을 비롯, 원형의 교회를 11세기 로마네스크 양식, 14세기 카를 4세 때 고딕양식으로 새 단장한 성 비투스 대성당이 당당하게 서있으며, 지금은 미술관인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 이르지 교회 또한 돋보인다.

체코 여행에 필요한 건강 정보

외국인에 대한 의료수가가 내국인에 비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여행 중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의료비를 지불한 후에는 영수증을 꼭 받아두어야 한다. 만약 갑작스럽게 이가 아파 견디기 힘들 때는 응급치과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 응급치과 (Prvni Promoc Zubni)
- 주소 Viadislavove 22, 110 00 Praha 1
- 전화 224-227-660 혹은 14122

〈체코대사관 여행정보 웹사이트 추천〉



05



01

역사의 무게

유럽의 광장은 그 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대변하거나 혹은 주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곳이 대부분이다.

프라하의 구 시가 광장 역시 체코 사람들의 삶과 정신이 잘 살아 있다. 15세기 종교개혁의 산 증인인 안 후스가 이곳에서 화형을 당했으며 1948년 체코 공산주의 혁명 또한 이 프라하의 구 시가 광장에서 시작되었다. 광장의 중앙에는 안 후스의 동상이 당시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는 뒤로 하고 만남의 장소이자 여행객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신 시가 바츨라프 광장은 원래 대규모 말 시장으로 현대 체코 역사에 반드시 등장하는 곳이다.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출범 및 1968년 소련의 침공이 있었던 '프라하의 봄'으로 유명해진 바로 그 곳이다.

01. 총 길이 124m, 폭 60m, 탑높이 100m의 성 비투스 대성당은 현재 대통령궁으로 쓰이고 있는 프라하성 안에 위치해 있다. 926년 교회건물을 11세기에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새로 지었으며, 14세기에 고딕양식의 현재 모습을 갖추었다.

02.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구 시가 광장은 밤에도 불야성을 이룬다.




02



03

중세에서 마시는 맥주

매 시간마다 좁은 골목을 비집고 나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구 시청사는 프라하의 얼굴이자 상징이다. 천동설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구 시청사의 '시계'는 1410년 위, 아래 두개의 시계로 만들어진 천문시계로 위 시계에는 모래시계를 들고 있는 해골인형과 기타, 거울, 돈주머니를 든 인형이, 아래 시계에는 천사와 세 현인의 인형이 짝을 맞추어 서 있다. 1시간마다 종이 울리기 시작하면 인형들이 움직이며 시계 바로 위에 있는 작은 창에서 예수의 12제자가 천천히 나왔다가 사라진다. 매 시간마다 벌어지는 이 장면을 보려고 구 시가 광장은 항상 여행객들로 분주하며, 이들을 위한 노천 카페 역시 준비하다. 이곳에서 잠시 향기 짙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껴도 좋고, 체코인들에게서 결코 떼놓을 수 없는 맥주 한 잔을 마셔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독특한 연수가 솟는 보헤미아의 플젠에서 중세부터 질 좋은 홉으로 만들어지는 체코 맥주는 이미 유럽에서는 꽤나 유명하다. 중세부터 남보헤미아에서 만들어졌던 부트바이저(budweiser)라는 맥주가 19세기 독일인에 의해 미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맥주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버드와이저라는 사실만으로도 체코 맥주의 유명세를 짐작할 수 있다.

199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의 중심지 프라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창조할 줄 아는 프라하에서 중세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온몸을 맡기고 있고 지내던 삶의 맥박을 꿈틀거리려 보자. 



06

글 | 김성진 사진 | 이종민



04

03. 1917년 체코의 문호 프란츠 카프카가 작업실로 사용했던 22번지의 푸른색 집 덕분에 황금골목은 더욱 유명하다.

04. 하나하나 엿보고 싶어지는 황금골목은 16세기 보초병들이 살기 위해 지은 고딕양식의 좁은길을 말하며, 이후 연금술사들이 이곳에서 모여 살면서 황금소로 불렸다.

05. 프라하성의 각문에는 두명의 위병이 지키고 있다.

06. 소련의 벽인 안후스의 군상은 사람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어 다가갈 수 없다.



05



위양무 원장

지금은 치과의사로 생활하고 있지만 어릴 때부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곤충을 좋아해 곤충학자의 꿈을 키워왔다는 위양무 원장. 치과의사로 진로를 정한 뒤 잠시 접어두었던 소중한 꿈, 초등학생이 된 아이에게 어릴적 꿈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곤충 세계로의 여행을 다시 시작했다. 신비로운 곤충의 세계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는 위양무 원장을 따라가 보자.

“누군가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묻는다면, 아마도 ‘행복’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가를 일터로부터 벗어난 자유시간이라고 하면,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현대인에게 취미생활이란 어떤 의미일까?—위양무 원장 기고문 中)

위양무 원장의 곤충 이야기

최근 그가 관심을 쏟고 있는 곤충은 딱정벌레들이다. 그 중에서도 홍단딱정벌레, 조롱박딱정벌레에 빠져있다. 이 종들은 산 속에 트랩을 설치하고 함정에 빠진 곤충들을 걷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깊은 산 속의 습지에 함정을 설치하는 과정이 매우 힘이 든다. 전날

함정을 묻고 다음날 수거를 하기 때문에 채집 기간도 1박2일 정도가 걸린다.

이처럼 어려운 채집 과정이지만 딱정벌레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비슷한 생김새인데도 지역별 편차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강원도, 전라도 각 지역별로 딱정벌레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색깔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 딱정벌레에 전념하게 만드는 매력이다.

바쁜 일상에서 그가 곤충 채집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는 따로 있다. 곤충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는 늦봄부터 늦여름까지라서 그때가 되면 토요일 오전 진료가 끝나는 대로 야외로 채집을 다닌다. 혹시 가족들에게 소홀해질까봐 될 수 있는 대로 함께 캠핑을 가서 가



신비로운 곤충의 세계에서 즐거움을 찾다



BUGS

죽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채집을 하거나 한두 시간 동안 딱정벌레를 잡기 위한 함정을 묻어 놓는 일을 한다. 나머지 기간에는 곤충들을 표본하고 관리한다.

매일 퇴근 후 저녁시간에 몇 마리씩 꾸준히 표본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 지금은 상당한 양이 모였다. 가끔 집에 오는 손님들이 언제 이만큼 모았냐며 놀랄 정도.

곤충 채집을 하기 전에는 골프나 운동을 했었지만 곤충 채집에 빠진 이후로는 운동할 시간도 부족하다. 그래서 그는 매일 점심시간에 우장산을 등산하면서 곤충 채집에 필요한 체력을 기른다. 좋아하던 운동을 못하게 돼 아쉬운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지금 자신을 가장 즐겁게 만드는 건 곤충들이라고.

최근 들어 에게는 한 가지 일이 더 늘었다. 작은 곤충들처럼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은 사진 기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 동호회에 올라오는 잘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조금씩 사진 기법을 배우는 중이다. 매크로 렌즈(macro lens)를 통해 보이는 곤충의 느낌은 신비로움 그 자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곤충에 대한 자료나 사진들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편이라 곤충 채집이나 정보 공유 측면에서도 사진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가끔 공동 전시회를 통해 작품들을 알리고 있지만, 앞으로 만족할 만한 작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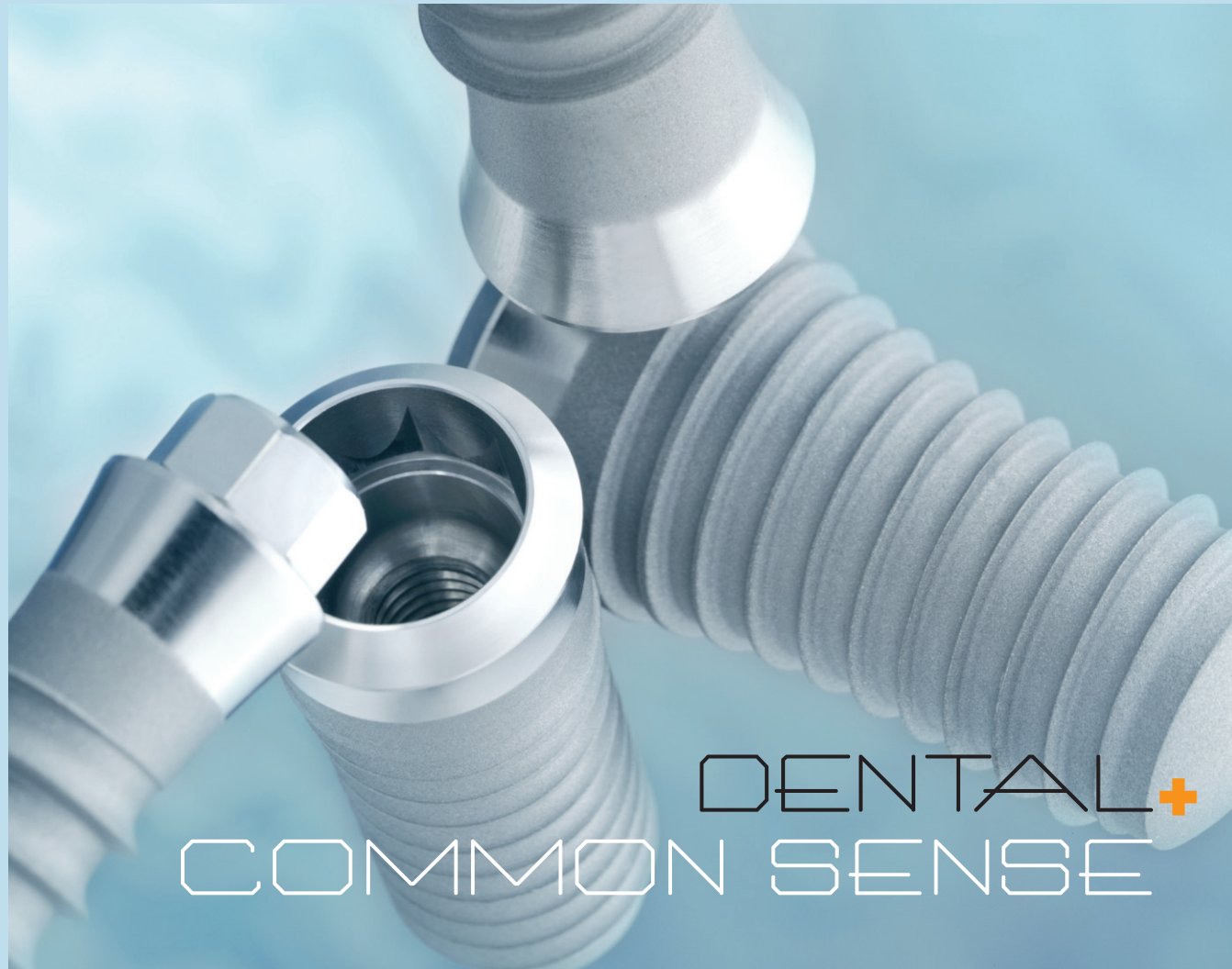
많아지면 전시회도 열고 싶다는 위양무 원장은 개인곤충박물관을 갖고 싶다는 바람도 있다.

지난 7월 나비축제의 고장 전남 함평에 개원한 자연생태공원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나비 곤충 표본 전시관에 더욱 관심이 있다. 나비는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이 되는 완전 변태 과정 중 각각의 형태들이 차이가 나는 곤충이다. 사람처럼 어렸을 때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나비라고 하면 대부분 성충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나비축제의 고장답게 새롭게 개원한 전시관만큼은 변태 중인 각각의 형태들을 잘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곤충 채집을 한다는 얘기를 하면 가끔 곤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의 대답은 항상 하나다. “곤충은 신비로운 발견” 그가 곤충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양성이다. 곤충을 접할수록 새로운 것을 계속 발견하고, 그 발견 자체가 신비로움으로 남는다.

치과의사로서의 그 역시 마찬가지다. 수많은 환자를 접하면서 느끼는 다양성은 새로운 연구로, 공부로 이어진다. 신비로운 곤충의 세계에서 즐거움을 찾는 자신의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신비로운 발견’이라는 위양무 원장의 하루는 그래서 늘 행복하다.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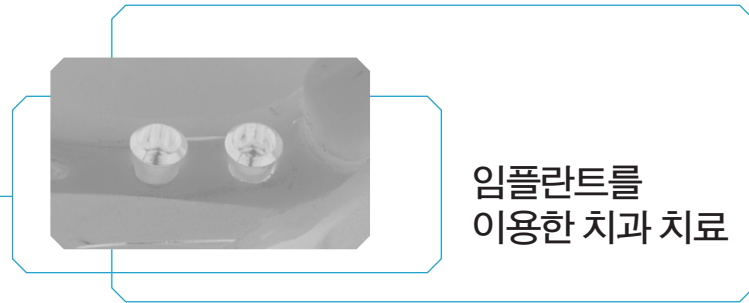
진행 | 양주희 사진 | 이종민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과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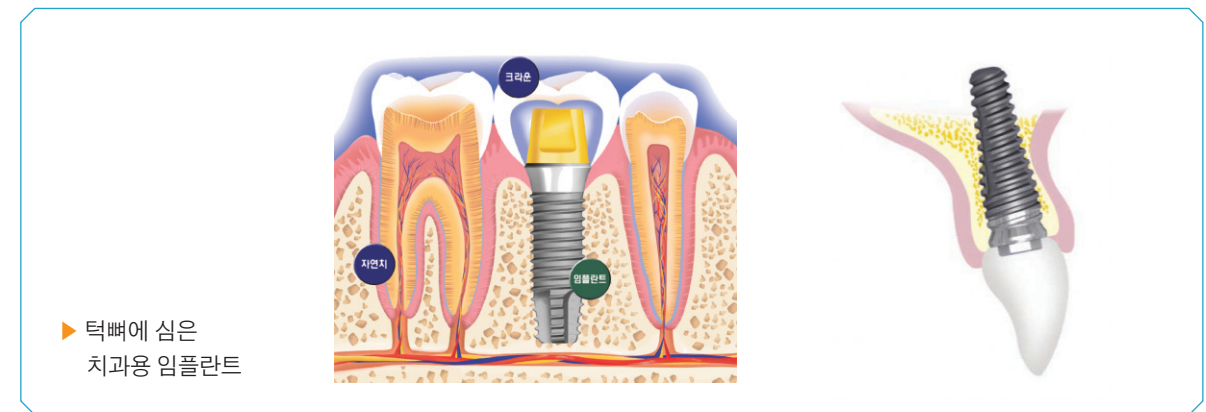
최병갑 공보위원

1. 임플란트란 무엇이고, 어떤 재료로 만드나요?
2. 임플란트는 누구에게나 가능한가요?
3. 임플란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4. 임플란트의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5. 임플란트의 부작용은 없나요?
6. 자연 치아 같이 고정하는 임플란트 보철물
7. 틀니를 받쳐 주는 임플란트 보철물
8. 임플란트의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9. 임플란트를 심은 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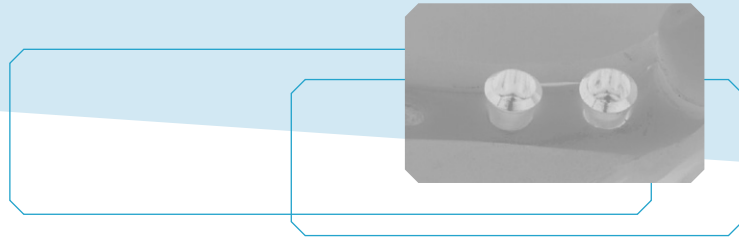


1. 임플란트란 무엇이고, 어떤 재료로 만드나요?

- + 임플란트는 신체 내에 삽입하는 비유기적인 물질을 가리키는 용어로 눈, 얼굴, 가슴, 심장 임플란트 등 다양하다. 이 중에서 빠진 치아를 대신하여 턱뼈에 심는 인공 치근을 치과용 임플란트(dental implant)라고 한다.
- +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료는 티타늄으로 99%의 티타늄에 다른 원소를 약간(1% 미만) 섞어 보다 강하게 만든다. 임플란트 표면은 티타늄 산화막이 형성되어 녹슬지 않고 뼈와 이물 반응 없이 붙는다.
- + 그 외에 티타늄에 알루미늄과 바나듐을 첨가하여 강도를 증가시킨 티타늄 합금(Ti-6Al-4V)이나, 뼈와 치아의 주 성분인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을 사용하기도 한다.



▲ 다양한 모양의 치과용 임플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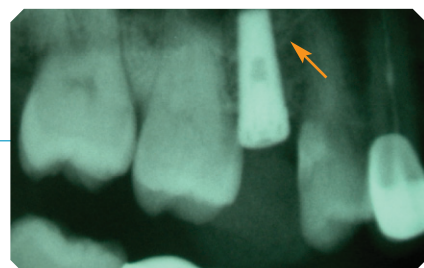
2. 임플란트는 누구에게나 가능한가요?

치아를 빼도 몸에 무리가 없는 성인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시술이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일부의 경우에는 치과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 성장이 끝나지 않은 16~18세 이전의 청소년
- * 갑상선 질환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 *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 *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 * 암 치료를 위해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환자
- * 치아를 잘 못 닦아 구강위생 상태가 불결하게 유지되는 경우
- * 전체 치아에 치주 질환이 너무 심한 경우
- * 임플란트를 심을 부위의 턱뼈가 너무 많이 흡수되어 모자란 경우



▲ 치주 질환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구강 위생 교육을 통해 잇몸 관리가 잘 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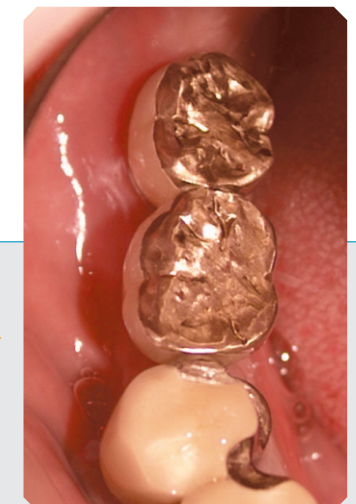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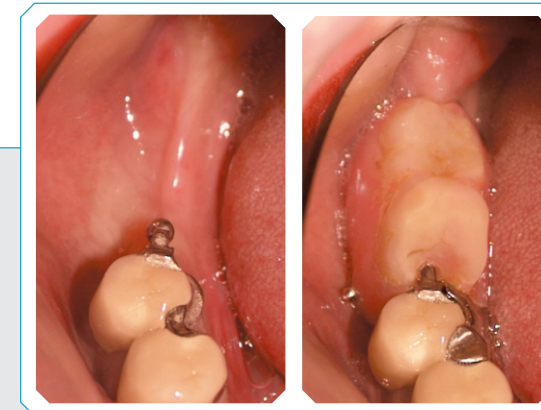


▲ 윗턱의 어금니 부분에는 뼈가 얇아 인공뼈를 사용하여 뼈를 만들고 임플란트를 심었다.

3. 임플란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부분에 인공 치근을 심어 새로 치아를 만드는 방법이므로 옆에 있는 치아를 갈지 않고, 다른 치아에 부담을 주지 않으므로 남은 치아의 수명이 길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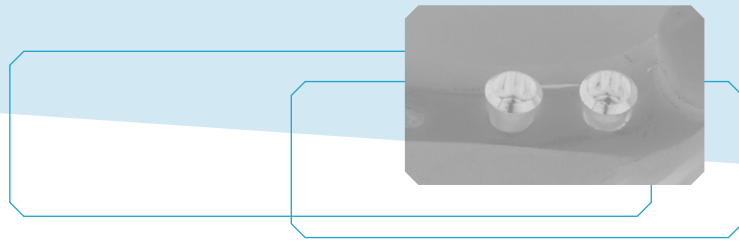
또한 씹는 힘이 자기 치아와 비슷하고 빠진 치아 개수만큼 심으면 틀니를 하지 않아도 되며, 임플란트 주위 턱뼈의 흡수를 방지하여 건강하게 유지시켜 준다.



▲ 부분 틀니 대신 임플란트를 2개 심어 수복한 경우



▲ 옆의 치아를 깎아 브릿지로 연결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심어 수복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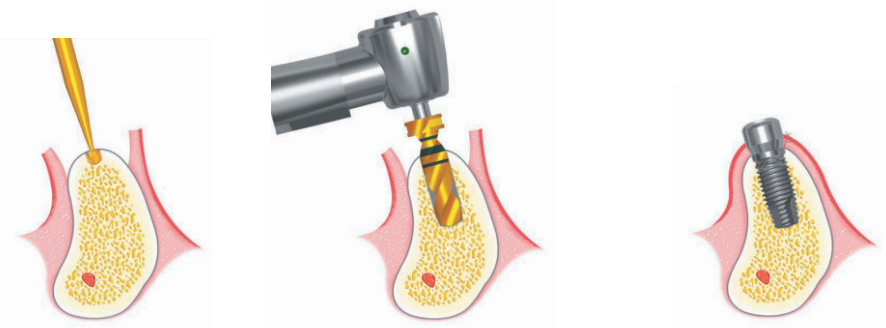
4. 임플란트의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임플란트는 잇몸을 절개하여 턱뼈에 인공치근을 심고 봉합을 한 후 3~6개월이 지나 턱뼈와 유착되면 기둥을 연결하여 새로운 인공치아를 만드는 것이다.

임플란트를 덮는 뚜껑은 입안과 전신의 상태에 따라 심으면서 잇몸 밖으로 바로 노출시키거나(1회법), 턱뼈와 유착되고 난 후 잇몸을 절개하여 잇몸 밖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2회법).

만약 임플란트를 심을 부위의 턱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없는 경우에는 다른 부위에 있는 자신의 뼈 또는 인공 뼈를 이식하고 4~10개월 정도 또는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임플란트를 심은 후 이를 만드는 보철 수복을 할 때까지는 한두 달에 한번 정도 내원하여 상태를 확인하면 된다.



▲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잇몸 밖으로 뚜껑을 바로 노출시키는 방법(1회법)



▲ 임플란트를 심고 턱뼈와 유착된 후 잇몸을 절개하여 뚜껑을 연결하는 방법(2회법)

5. 임플란트의 부작용은 없나요?

대부분의 경우 부분 마취를 하고 시술하므로 수술 중의 통증은 거의 없으며 수술 후에는 환자나 수술 정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임플란트를 심으면 이를 빼고 나서 느끼는 정도로 약간 붓고 경미한 통증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흡연은 수술 후에 잇몸과 턱뼈의 치유를 방해하므로 절대 금지하고 수술 전후의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임플란트를 심는 수술은 발치와 같은 다른 외과적 수술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 수술 부위에서 피가 오래나거나, 턱 주위에 피멍이 생길 수 있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 수술 전후에 항생제를 투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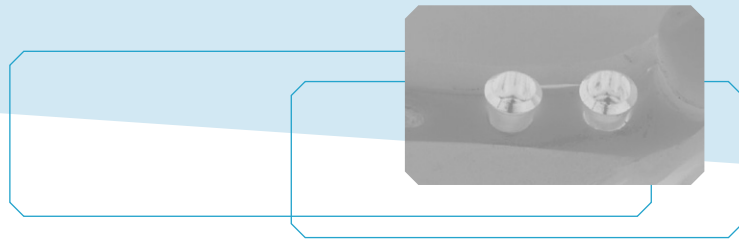
드물지만 수술 중에 인접한 신경을 자극하면 입술이나 턱 주위 감각이 일부분 변하거나 없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감각 이상은 대부분의 경우에 서서히 정상으로 회복된다.



◀ 수술 후 흡연을 하면 염증이 생기고 잇몸이 벌어진다.

▶ 빈혈이 심한 경우는 수술 후에 피가 오래 나거나 치유가 늦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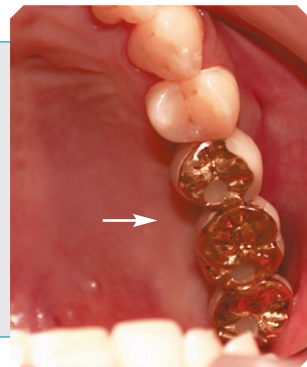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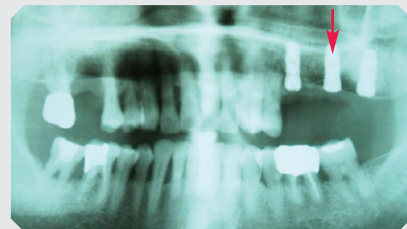
6. 자연 치아 같이 고정하는 임플란트 보철물

자신의 치아처럼 고정성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 앞니는 빠진 치아의 수 또는 그 이하로 임플란트를 심고 어금니 부위는 빠진 치아의 수 또는 그 이상으로 심는다.



▲ 앞니가 심하게 흔들려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심어 임플란트 브릿지로 수복하였다.

▶ 부분 틀니를 하는 대신
임플란트를 심어
브릿지로 수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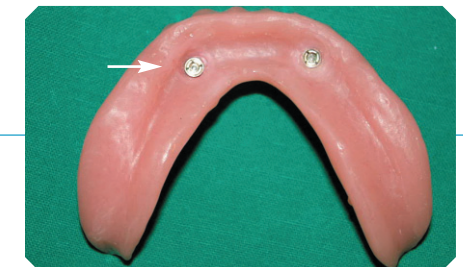


7. 틀니를 받쳐 주는 임플란트 보철물

부분 틀니나 완전 틀니가 헐겁고 아프며 잘 씹히지 않는 경우에는 턱뼈에 임플란트를 심어 틀니를 받쳐 주도록 하면 훨씬 편안하고 사용하기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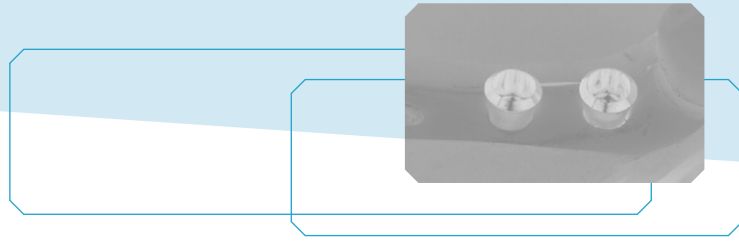
▲ 완전 틀니를 임플란트로 받쳐 주면 씹는 힘이 증가한다(바-어태치먼트사용).



▲ 완전 틀니를 임플란트에 연결하면 헐겁지 않다(볼-어태치먼트사용).



▲ 앞니가 약해 어금니에 고정성 보철을 하지 않고 부분 틀니를 받쳐 주는 자석을 연결하였다.
(자성-어태치먼트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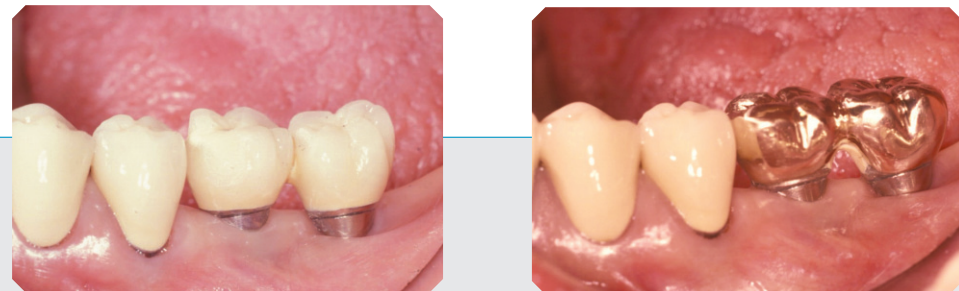


8. 임플란트의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임플란트는 일단 주위의 턱뼈와 유착되고 나서 적절한 구강위생 관리와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이 이루어지면 수명은 반영구적이다. 다만 오래 사용하여 보철물이 닳거나 파절되면 교체 또는 수리를 할 필요가 있다. 턱뼈의 흡수 상태, 구강 청결 및 흡연 등의 습관에 따라 간혹 뼈에 고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임플란트를 심는다.

치실 등을 소홀히 하여 구강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지 못했을 때는 임플란트 주위 조직에 염증이 생겨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 특히, 흡연은 자연 치아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주위의 잇몸 건강에 나쁘다.

당뇨병 같은 전신적 질환이나 이같이 습관도 임플란트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 아래 어금니를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도재로 수복하였는데 사용 중 파절되어 금크라운으로 교체하였다.

9. 임플란트를 심은 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를 대신하는 인공치아이므로 자신의 치아처럼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너무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은 보철물을 손상시키고 임플란트에 충격을 주므로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플란트는 썩지 않지만 주위 잇몸의 위생상태가 불결하면 치주질환이 생겨 자연 치아보다 더 빠르게 임플란트 주위의 뼈가 녹아 없어지므로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검진을 받고 스케일링을 해야 한다.



◀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 주위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청결이 유지되도록 잘 닦아 준다.



▲ 틀니를 받쳐 주는 임플란트 보철물 주위는 특수치실로 구석구석 닦아 주어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한다.

옛사람들의 치아관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알고 있는 3·3·3 칫솔질 원칙.
 하루 3번, 3분 동안, 식후 3분 안에 칫솔질 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겐 익숙한 하나의 습관이다.
 그런데 문득 머릿속에 그려지는 물음표 하나. 사극을 봐도 고전 외화를 봐도 칫솔질 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없는데
 그렇다면 칫솔도, 치약도 없던 과거의 그들은 과연 어떻게 치아관리를 했을까?

옛날에는 치아를 닦는다는 것이 얼굴을 씻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여러 약초나 식물을 혼합해서 쓰기도 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치약 대신 쓰인 것이 '소금'. 조선시대 궁중기록을 보면 궁녀들은 소금에 금가루(궁의 재정 상태가 매우 좋았나 보다)를 섞어 양치를 했고 희, 빈, 숙원, 숙의 같은 후궁들은 구내염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 벚꽃 말린 가루를 고운 소금에 섞어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그 짠 걸 어떻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들 알다시피 소금 자체가 가지는 항균력은 비교적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게 한다. 현대에서도 소금 성분을 주재료로 한 치약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평민들의 경우는 대부분 그냥 소금을 사용했는데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지푸라기를 이용해 이를 닦기도 했다.

치아 위생에 신경을 썼던 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집트인들의 경우 아침에 치아를 닦는 일이 보편화 돼 있었고 신기한 것은 상류계층 사람들은 머리카락과 치아를 돌보는 전문하인을 따로 두었다는 사실이다.

머리카락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치아관리 전문하인(나름대로 전문직?)이 입만 벌리면 달려와 닦아 주는 모습을 상상하니 희한할 따름이다. 또 이집트의 기록매체였던 파피루스의 BC 1900년에서 BC 1200년 사이의 기록을 보면 '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곡식 낱알과 황토, 꿀을 각각 1:1:1로 섞어 치아에 눌러 바른다. 다른 처방으로는 돌가루와 황토, 꿀을 1:1:1로 섞어 치아에 눌러 바르는 방법도 있다' 라는 치아관리법이 나와 있다.

고대 인도에서는 신체 위생과 함께 치아 위생을 매우 강조해 기상과 동시에 치아를 닦도록 했다.

칫솔은 깨끗하고 벌레가 먹지 않은 나뭇가지 끝을 비벼 만들었는데 나무의 종류와 길이, 폭까지 정리돼 있는데다 계절 요인과 사용할 사람의 기질에 따라 나무 종류를 달리 했다.

치아 세정제로는 꿀, 기름, 후춧가루, 계피, 생강, 소금 등 인도산지의 여러 향신료를 혼합해 사용했고 잇몸에 이상이 생기면 양치를 금지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로 인도인들이 치아건강에 신경을 썼는지 가늠할 만하다.

이웃나라 일본에는 1700년경까지 '흑치(黒齒)'라는 풍습이 있었다.

치아 자체가 까만 것은 아니고 남편을 향한 영원한 순종과 충성의 상징으로 일본 여성들은 붓이나 솔을 사용해 까맣게 치아를 단장하는 것이다. 치아가 까만 것이 단장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싶지만 일본인들은 혼인을 하면서 신부가 흑치 염색을 받는 것이 예식의 하나였다.

문화적 차이이지만 지금 생각으론 신부가 까만 치아를 보이며 웃으면 신랑이 흠칫하며 달아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경우는 '까우'라는 빈랑수 나무의 열매 씨를 말려서 석회류를 물로 반죽해 붙이고 다시 침나무 비슷한 나뭇잎으로 싸서 씹도록 했다.



이것을 씹으면 침이 빨갛게 되고 입에는 약간 쓴맛과 함께 시원한 느낌을 준다. 많이 씹으면 치아가 갈색 내지 흑갈색으로 착색되는데 베트남에서는 착색될수록 건강한 치아의 상징으로 여겼다고 한다.

예로부터 오복 중의 하나로 건강한 치아를 꼽을 만큼 치아건강은 국가를 막론하고 중요하게 여겨왔다. 민족과 문화의 차이에 따라 치아관리법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고대로부터 치아 위생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조상들의 이런 끊임없는 노력과 위생관념이 치아질환 예방과 구강보건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

참고문헌 : 세계치과의학사(대한치과의사학회 편찬)

6인의 신나는 파워~ 재즈댄스에 담아 즐거움과 열정을 전파한다

주말 오후 강남의 한 아파트 건물 지하 연습실.
신나는 리듬에 맞춰 즐겁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재즈댄스 연습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울시여자치과의사회 회원 6인으로 구성된 재즈댄스 동호회원들의 열정을
잠시 들여다 보았다.



최은숙 원장 / 마혜숙 원장 / 강지행 원장 / 조민선 원장 / 박영숙 원장 / 박정현 원장 (좌로부터)

JAZZ DANCE



인터뷰를 요청할 때부터 느낌이 좋았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을 때 즐거움에 가득 찬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전화를 건 사람조차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려면, 먼저 스스로 즐거워야 가능한 것 아닐까? 재즈댄스로 친목도 다지고 건강관리까지, 무엇보다 부족한 게 없다는 박영숙 원장 역시 상대방을 편하고 기분 좋게 대하는 사람이었다.

“재즈댄스는 다양한 동작들을 익혀서 몸의 에너지 지향 능력 및 운동신경 신진대사와 몸의 기능을 건강하고 활기 있게 해주는 과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즐겁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죠.”

어릴 적 꿈이 백댄서였을 정도로 리듬을 좋아한다는 박영숙 원장은 3년 전쯤 건강을 위해서 에어로빅을 배우러 갔던 그곳에서 ‘재즈댄스’를 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여자치과의사회 모임에서 재즈댄스 발표회를 본 뒤 마음 맞는 이들과 함께 ‘한 번 배워보자’ 해서 동호회를 만들게 되었다. 처음에는 동호회원도 16명 정도였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둘씩 모임에 빠지게 되면서 지금은 ‘진정한 재즈댄스 마니아’로 불리는 6명만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모임은 1년 8개월째네요. 처음에는 건강도 챙길 겸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정말 좋더군요. 일단 뜻이 맞는 선생님들과 함

께 주말마다 만나서 사는 이야기, 병원 이야기, 재즈댄스 발표회 준비 등... 주말에 이렇게 땀 흘리면 기분이 진짜 좋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초반에는 서툴고 어려운 동작은 따라 하기 힘들었지만, 그것마저도 즐겁게 생각될 만큼 지금은 재즈댄스 마니아가 되었다는 박정현 원장은 자신의 이런 즐거움이 바로 일과 가족, 동료들에게 전파되고 있어 더 즐겁다고 했다.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주말 정기모임은 꼭 참석하도록 한다는 6인의 치과의사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모여 기본 동작부터 워밍 등 30~40분 정도의 몸풀기 동작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재즈댄스를 즐긴다.

생동감 넘치는 비트에 몸을 맡기고 신나게 연습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즐거워진다.

“최신 댄스곡을 아마도 제가 더 많이 알걸요?(웃음) 재즈댄스를 통해 얻는 게 참 많아요. 자세도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건 물론이고요. 뭐든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치과의 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요.”

재즈 리듬을 타듯 일도 생활도 모두 활력이 넘친다는 6인의 치과의사들. 새로움에 대한 도전과 끊임없는 열정이 오늘도 연습실에 가득하다.

진행 | 양주희 사진 | 이종민



구강건조증

구강건조증이란 침이 생기거나 흐르는 상태에 이상이 생겨서 입안이 지나치게 마르는 것을 말한다.
 침샘의 병리학적 장애들로 인한 1차성 구강건조증과 기타 원인으로 인한 2차성 구강건조증이 있다.
 1차성 구강건조증은 침을 분비하는 침샘구조의 병리학적 장애들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는 드물게 나타나고,
 약물복용 방사선치료 등의 2차적 결과로 나타나는 구강건조증이 흔하다.

장정미 공보위원

침의 역할

하루에 1.5ℓ 정도 분비되는 침은 구강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 입안을 부드럽게 하여 음식물을 씹고 삼키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한다.

- ◆ 침은 구강을 윤활시키며 저작·연화·발성을 가능하게 한다.
- ◆ 침은 치아와 구강점막의 미생물과 음식 찌꺼기를 기계적으로 세척한다.
- ◆ 침은 구강내의 산과 알칼리로부터 치아를 보호하고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점막세포를 보호한다. 이는 위점막이 위를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용과 유사하다.
- ◆ 침의 완충성분은 위산의 역류로 인한 식도의 손상을 막아준다.
- ◆ 항세균 작용
- ◆ 소화 작용
- ◆ 용매 작용으로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구강건조증으로 인한 증상

- ◆ 침분비가 감소하면 혀와 입천장 사이에서 음식물이 뭉쳐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을 씹기가 힘들다.
- ◆ 미각저하로 식욕이 줄어들어 영양상태가 나빠진다.
- ◆ 발성장애가 생기고 야간에는 더욱 심해져 불면증까지 온다.
- ◆ 구강상피가 위축되어 점막염과 궤양이 자주 생겨 쓰라림을 호소한다.
- ◆ 침의 기계적인 청소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않아 다수의 충치가 생기고 만성 치주질환이 심해진다.
- ◆ 틀니 하방조직의 염증으로 틀니가 잘 맞지 않는다.
- ◆ 혀에 백태가 심하고 주름이 생긴다.
- ◆ 입안이 화끈거리는 구강작열감과 입냄새가 난다.



혀에 생긴 백태



구강건조증으로 심해진 치석 침착

구강건조증을 일으키는 원인

||||||| 침샘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곰팡이 등에 감염되어 수송관이 막힘
ex) 유행성 이하선염, 급성세균성 타액선염

||||||| 침샘관 타석증
침이 분비되는 관에 칼슘과 같은 결정체가 생기는 증상

||||||| **약물복용**
구강건조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약 400~600가지의 약물이 구강건조증의 원인이며
특히 항히스타민제, 정신과 약물은 심한 구강건조증을 일으킨다.
고혈압 치료제, 이뇨제 등도 어느 정도 구강건조증을 일으킨다.



||||||| **방사선치료**
목 부분의 방사선치료는 타액선을 파괴시켜 침의 분비가 억제된다.

||||||| **심리적 문제**
불안, 고통, 우울 등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침분비량이 감소한다.

||||||| **구강호흡**
입으로 호흡을 하는 경우로 특히 어린아이는 구강호흡이 지속되면
침의 분비량이 적어져 충치의 발생빈도가 높아진다.

구강건조증은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되지만 이는 노화현상이라기보다는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거나 앓고 있는 질환의 2차적 결과라고 생각된다. 건강한 삶을 영위해 왔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많은 노인들에게는 침의 분비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보고가 있다.

치료 및 예방

- ◆ 수면 시 가습기 사용
- ◆ 입술 등에 보습제 사용
- ◆ 타액분비를 자극하는 음식 섭취
무설탕 껌, 신 음식, 과일, 야채 등 딱딱하고 수분이 풍부한 음식
- ◆ 불소도포나 불소용액 양치 등을 통해 충치예방
- ◆ 식사 시에 물을 많이 마신다.
- ◆ 카페인 함유 탄산음료나 커피, 차, 알코올의 섭취를 피해야 한다.
- ◆ 턱 밑과 양쪽 뺨을 자주 마사지하여 침샘주위를 자극한다.
- ◆ 침샘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면 인공타액을 식전에 사용한다(30분간 지속효과).
- ◆ 침샘의 기능이 약간 남아있다면 침분비 촉진제를 처방하여 사용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일, 야채를 많이 먹으며 술과 담배를 피하고 약을 함부로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이 마른다



[경희치대 구강내과 김수]



Carrot, Kimchi, Green Tea, Baguette

치아건강에 좋은 식품



원시인의 주된 식량이었던 나무 뿌리, 열매에는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치아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를 자정작용이라고 한다. 현대에 와서 먹게 된 문명식은 부드러기 때문에 치아의 마모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면 치아의 씹는 면,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에 플라그가 쉽게 부착하며 자정작용이 없기 때문에 쉽게 충치가 생긴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이라고 싫거나 굵거나 하면 섬유질이 파괴되어 자정작용이 급격히 감소한다.

치아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곧 칼슘이 많이 함유된 것을 머리에 떠올리게 되지만 이보다는 단단하면서도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타액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하다.

샐러리, 당근, 바게트빵, 김치, 현미밥 등은 치아와 잇몸을 튼튼하게 한다.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어 치아를 닦아 주는 세정작용까지 한다. 특히 김치의 당성분은 무게가 무거워 입 안에서 잘 분해되지 않으며, 김치에 들어 있는 산 역시 치아 표면의 세균막을 뚫고 들어가지 않아서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또한 **녹차나 감잎차** 등 잎차는 충치를 예방하는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나서 물 대신 차로 입안을 헹구는 것도 좋다. **딸기**에도 충치 예방에 효과적인 자일리톨이 다량 함유돼 있다. **멸치**는 철분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 이를 튼튼하게 해주고 치아의 힘을 길러준다. 멸치를 비롯한 생선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치아건강 뿐만 아니라 뼈와 신체 발육에도 좋은 식품이다. **치즈**에는 칼슘을 비롯한 무기질과 각종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치즈 속 무기질이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며 치아표면을 보호해준다. 그리고 치아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면 50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을 피해야 한다. 잇몸을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글 | 양주희

Tip!

단 음식을 먹지 않아도 충치는 생긴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의 주성분인 탄수화물은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당이 된다. 어떤 음식이든 식생활에서 당류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므로 충치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설당보다 강력하게 치아를 썩게 하는 효과를 가진 것은 아니다. 단 음식을 먹지 않아도 충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는 반드시 칫솔질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XYLITOL

자일리톨 껌 충치예방 효과 있다

- 자일리톨 껌 사용하는 것만으로 47.1% 충치발생 감소
- 경북치대 · 핀란드 투르크 대학 공동 연구결과
- 자일리톨과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세계 최초 연구
- 충치예방효과를 보기 위해 자일리톨 껌 일일 평균 4~5개
- 국제 치과 학술 저널
International Dental Journal (2005년 55호)에 게재



‘핀란드 산타클로스가 씹는 껌’, ‘자기 전에 씹는 껌’ 등 술한 화제를 일으켰던 자일리톨, 과연 충치예방 효과가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연구결과가 있다. 바로 경북치대 예방소아치과 송근배 교수 연구팀과 핀란드 투르크 대학의 카우코 마킨넨 교수팀이 공동 진행한 “Korea Dae-Gu Study” 연구 결과이다.

한국-핀란드 공동 연구팀이 진행한 본연구는 우리나라 인구통계학적 특성상 표준에 속하는 대구지역 5~6세 아동 1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결과 ‘자일리톨 껌 저작에 의한 유치 우식증(蝕症 이하 충치) 예방효과 비교분석’에 따르면, 자일리톨 껌을 씹었을 경우 충치경험 유치면지수가 47.1% 감소했다.

특히 아무것도 씹지 않은 대조군의 충치경험 유치면지수가 연구시작 시 8.77개 면에서 연구완료 시점에서는 13.96개면으로 1년 동안 5.19개면이 증가해 연간 우식을 경험한 유치치면의 증가율은 59.2%로 나타났다.

반면 자일리톨 껌군에서도 충치경험 유치면지수가 초기 8.35개면에서 연구완료 시 10.97개면으로 나타나 1년 동안 2.62개면이 늘어,

다양한 자일리톨 제품들



31.3%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각 실험군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충치경험 유치면지수에 있어서 1년 동안 자일리톨 껌군은 대조군에 비해 47.1%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제 3회 ‘한국-핀란드 충치예방심포지엄’에서 발표 되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자일리톨과 유치관련 논문으로 자일리톨 집중투여의 효과를 연구한 점을 인정 받아 권위 있는 치과학술논문지인 ‘International Dental Journal’ 2005년 55호에 게재 되었다.

송근배 경북치대 예방치의학 교수는 “핀란드,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 자일리톨 껌의 충치예방 효과가 연구됐지만 국내에선 이번 연구가 처

음이다”라며 “충치를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칫솔질이며, 자일리톨 껌은 그 효과를 더욱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자일리톨 껌 저작에 의한 충치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루 4~5개 정도의 껌을 씹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자일리톨의 충치예방 효과를 검증해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으며, 정기적인 자일리톨 저작활동으로 건강한 구강관리를 할 수 있어 일부 치과에서는 ‘자일리톨’을 환자들에게 일반 처방 하고 있다.

한편, 연구에 사용된 자일리톨 껌은 자일리톨 77%가 함유된 시중 제품과 같은 제품이다.

참고사항

■ 충치경험 유치면지수

1인이 평균적으로 지니고 있는 치아우식증(충치)을 경험한 유치(젓니)의 수로서, 젓니 충치경험도를 표시하는 지표이다.

■ 연구방법

공동 연구팀은 자일리톨 껌 저작에 의한 어린이들의 유치 우식증 예방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대구남구 소재 3개 어린이집 123명의 만 5~6세 어린이를 자일리톨 껌을 씹는 군(42명)과 아무것도 씹지 않은 대조군(39명)으로 나누고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12개월 동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일리톨 껌을 씹게 했다.

1일 5회 저작을 원칙으로 했으며 각 어린이집에서는 담임교사의 지도 아래 오전 10시(유치원 도착 직후), 오전 11시 30분(중식 전), 오후 1시(중식 후 오후 교과 시작 전), 오후 3시(하교 직전) 등 4회, 각 가정에서는 취침 전 부모의 지도 아래 칫솔질 후 1회 저작하고 취침하도록 했다. 한 번에 껌 한 개를 제공했다.



가을, 겨울을 대비하는 건강비법


늦가을부터 시작해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는 건조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한랭하고 건조해진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건조해진 공기로 인해 독감, 감기, 천식, 뇌졸중 등 질병에 걸리기 쉽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조금만 주의하고 관심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대한 예방법은 독감예방접종과 적당한 난방 그리고 환기이다. 적정 온도의 난방은 물론, 밀폐된 실내의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주 환기시켜야 한다. 또한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습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 우리 호흡기 점막이 충분한 수분을 머금도록 해야 한다. 이때 가습기의 청소를 자주 해주어야 하는데 청소를 게을리 하면 오히려 공기가 세균에 오염될 수도 있다. 가습기가 없다면 수건을 적서 널어 놓거나 화초나 수족관을 활용한다. 무엇보다 손의 청결과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심장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면소재의 옷을 얇게 여러 벌 겹쳐 입어 몸 안의 온기를 유지해야 한다. 노출되는 얼굴, 목, 손 등은 보온을 위해 장갑이나 목도리 모자 등을 쓰도록 하고, 특히 머리 부분의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외출할 때는 가벼운 맨손운동을 한 뒤 집을 나오는 것도 좋다. 추운 외부에서의 무리한 운동은 삼간다.

피부질환의 예방은 목욕 후 오일 등 피부건조를 막는 크림을 적당히 발라 주고, 몸 안에 열이 생기지 않도록 치즈나 피자, 중국요리, 튀긴 음식과 같은 기름진 음식을 피한다. 뜨거운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가습기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두꺼운 외투를 피하고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다. 골절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두 손을 내어 놓은 채 걸어 다녀야 한다. 빙판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집 앞의 눈을 쓸어두는 배려도 필요하다. 노인들의 경우 한 번 골절이 되면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못 하면 합병증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건강 관리를 위해 몸 안의 혈기를 돈구어주고 폐의 기운과 윤택한 피부 유지를 도와주는 한약재로는 당귀나 계피, 어성초, 진피, 홍삼 등이 있는데 이 중 한 가지만으로 차를 끓여 마셔도 그 효과가 좋다. 이외에도 카모마일, 라벤더, 페퍼민트, 재스민 같은 허브 티도 심장박동을 안정시키거나, 심장, 뇌혈관을 소통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좋은 약차이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편안한 마음가짐, 무리한 운동을 삼가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실내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야 한다. 

글 | 양주희





장세영 공보위원

Q 얼마전 네 개의 치아에 보철치료(금니)를 했는데,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금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다른 재료에 비해 오랫동안 충치가 재발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철치료의 평균수명은 5~10년 정도로 알려져 있고, 사람마다 1년부터 30년까지 사용기간도 천차만별입니다. 정기검진, 올바른 칫솔질 등 지속적인 구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어금니를 금으로 씌웠는데 오래 되어 다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떼어낸 금니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현행 의료법상 환자의 구강 내에서 제거된 보철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대부분 치과에 일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치과에서 임의로 폐금을 금액으로 환산해 거래하지는 않습니다. 제거 후 돌려받으신 금니는 환자분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Q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어느 날 보니 혀에 설태까지 하얗게 끼어 있어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A 심한 충치나 잇몸질환, 올바르지 못한 칫솔질 습관이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폐질환, 소화불량, 호르몬 변화 등 전신질환이 있거나 파, 마늘, 상추, 카레 등 황산화물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입냄새를 유발합니다. 일반적으로 혀의 색깔과 상태는 그 사람의 건강을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칫솔질 할 때 혀를 닦는 것을 잊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그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치과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Q 임신 중에는 치과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임신 중에도 치과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신 중에 치과치료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치료술식이 아니라 치과치료에 대한 공포감, 또는 불편한 자세 때문입니다. 태아의 착상이 불안정한 임신 초기(1~3개월)는 외부 충격에 의해 유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임신 중기(4~7개월)는 치과치료에 가장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임신 중 치과치료를 받는다면 산부인과 전문의와 본인과 태아의 건강에 대해 상의하셔야 하고, 항생제 처방 등 약제 투여에 대해서는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와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면 스케일링, 충치치료, 사랑니 발치 등은 미리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충치도 쉽게 생긴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A 심리적 안정도와 충치 발생의 상관관계는 여러 실험과 논문을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충치유발을 촉진한다는 근거는 바로 침(타액) 분비량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침에는 충치균을 억제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긴장과 불안한 상태가 지속될 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침 분비량을 80%까지 줄여들게 만듭니다. 침의 분비가 줄어들다는 것은 곧 세균의 활동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만큼 충치 위험이 더 많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베타 엔돌핀은 인체 내에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충치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 음식을 줄이고 열심히 이를 닦는 것 못지않게 행복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잇몸이 붓고 피가 납니다. 치주질환은 왜 생기는 거죠?

A 잇몸 염증의 가장 큰 요인은 플라그와 치석입니다. 플라그와 치석은 대개 칫솔질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기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세균이 잇몸 속으로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치열이 고르지 못하거나 보철물이 잘 맞지 않는 경우, 담배를 많이 피우는 생활습관도 플라그와 치석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전신건강이 나쁘거나 영양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치주 질환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세균에 대한 저항력, 조직 재생력 등이 떨어지게 돼 입 속 세균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여 염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염증이 심하게 악화되거나 치주질환이 쉽게 낫지 않고, 치료 후에도 재발할 위험이 높습니다. 알레르기 질환, 사춘기 호르몬 이상, 임신 또는 수유기의 여성도 치주질환 발병율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불소도포와 실란트가 있는데, 각각 어떤 특징이 있나요?

A 불소도포와 실란트는 근본 원리부터 적용 방법, 시기가 각기 다릅니다. 불소도포는 젤 같은 약품을 치아 표면에 바르고 몇 분 동안 유지해 약제를 치아 속에 침투시켜 충치로부터 저항성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약 3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되므로 주기적인 시술이 필요합니다. 실란트는 어금니의 깊은 홈 부위를 충치가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치과재료를 붙여 홈을 메우는 방법으로, 반영구적입니다. 하지만 입안에서 음식을 씹는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탈락될 수 있어 정기검진을 통한 유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부분적 탈락상태로 방치되면 심한 충치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신경치료를 했는데 계속 아프고 불편합니다. 치료가 잘못 된 건 아닌가요?

A 신경치료 중 또는 치료 후 1~2개월까지는 계속 불편하거나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치료는 치근단 조직에 자극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이전에 있던 염증이 완전히 치료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치료 중에 계속 아프다고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신경치료 방법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면 좀 더 복잡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치근단 수술, 의도적 재식술) 수술은 치아의 뿌리 끝에 있는 염증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치아의 뿌리 끝을 잘라 내거나(치근단수술), 치아를 의도적으로 발치한 후 관찰, 염증조직을 제거하고 뿌리 끝 처치를 한 후 다시 재식하는 방법(의도적 재식술)을 쓰기도 합니다. 신경관이 너무 오염됐거나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할 수 없는 경우(심한 치주병, 뿌리에 심하게 금이 간 치아)에는 바로 발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또는 치아의 상태에 따라 신경관의 형태는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신경치료 자체가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동북아 허브 전시회로 우뚝! SIDEX 2006

서울치과과의사회 창립 81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 및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06)가 8천9백여 치과인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치과기자재 전시회를 자랑하고 있는 SIDEX는 올해 801부스 전시와 연인원 2만여 명이 참석하는 등 명실공히 동북아 허브 전시회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라이브서저리, 패넬토론 등 새로운 형식을 선보인 종합학술대회는 학술대회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PHOTO NEWS



건강한 치아로 환하게 웃어요! 치아사랑 시민걷기대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서로 함께'를 모토로 개최된 2006 치아의 날 행사가 '서울 숲'에서 개최됐다. 매년 구강보건주간을 맞아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치과의사상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회의 대시민 홍보활동이다. 올해도 2천여 명의 치과의사 가족들과 시민 등이 대거 참여해 그 관심과 열기를 더했다. 2006 건치방송인 노현정 아나운서와 건치연예인 텔런트 고주원 씨가 참석해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으며 치과의사 동반자녀 및 참여 청소년들의 봉사활동도 활발히 진행됐다.





2006 건치선발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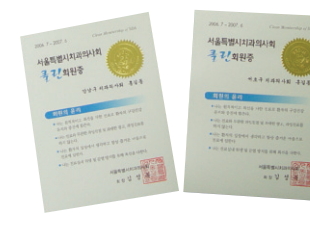
6월 1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와 소아치과에서는 건치자모, 건치아동, 건치노인 선발 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심사는 예방진료상태, 치주상태, 치열상태 점검으로 이뤄졌으며 치아가 튼튼하고 고르며, 얼굴과 가장 조화를 이룬 사람을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영예의 건치자모 오복상에는 이승민-김영희 자모가, 다복상에는 이윤성-최선열 자모, 민지희-장현주 자모, 행복상에는 송은채-전순옥 자모, 김민정-한성희 자모, 박혜성-송희정 자모가 선정되었다. 건치아동 금상에는 손용빈(거여초 5학년)·정재연(목동초 5학년) 학생, 은상은 이호준(일산초 5학년)·고세진(개운초 5학년) 학생에게 돌아갔으며, 예성창(서원초 4학년)·이아연(동산초 4학년) 학생이 동상을 차지했다. 2006년 처음 선발한 건치노인에는 이용선(80세)씨가 금상을, 장애석(76세)씨가 은상을, 윤정임(73세)씨가 동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마우스가드 끼고 꼭 우승할게요! 광진구회, 성동초등 야구부 지원

치과계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마우스가드 대중화를 위해 광진구회(회장 박원균)가 앞장섰다. 광진구회는 어린이 야구단으로 명성이 높은 관내 성동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에게 마우스가드를 맞춤 제작해 주고, 구강 및 안면 손상으로부터 안전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일본, 미국 등에서는 접촉성 스포츠 및 체육시간에도 마우스가드의 의무사용토록 규정돼 있다.

DENTAL NEWS



의료분쟁 미연에 방지합시다! 치과 진료동의서 제작

최근 그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는 의료분쟁과 관련, 치과 진료동의서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본회는 환자와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환자와 의사간 진료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진료에 앞서 진료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진료계획에 동의했는지, 진료비는 어떻게 완납하게 되는지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서명해 치과 의사와 환자 간의 미묘한 마찰을 방지하도록 돕고 있다.

믿고 진료 받으세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인증합니다! 클린 회원증 실시

“치과의사 윤리에 입각한 소신있는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환자들이 믿고 진료 받을 수 있는 치과의사를 직접 인증해주는 ‘클린 회원증’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6월부터 본격 배포된 클린 회원증은 치과계 의료질서를 문란시키고 환자들을 현혹하는 과잉진료·과대광고를 지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가까운 치과에서 서치가 인증하는, 믿을 수 있는 치과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장애인과 함께 울고 웃고! 장애인치과병원 개원 1주년 기념 치과인문축제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운영하는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개원 1주년을 기념하는 치과인문축제가 6월 8~11일 문화일보홀에서 개최됐다. 장애인 및 독거노인 200명을 초청한 가운데 ‘연극을 사랑하는 치과의사 모임’ 덴탈씨어터의 공연으로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소시민들의 삶의 애환을 그린 연극 ‘해가 지면 달이 뜨고’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희망을 함께 이야기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대의원 열의, 꽃샘추위 녹였다! 제 55차 정기대의원총회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제 5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3월 18일 개최됐다. 한 해 사업을 계획하는 정기총회에는 3,900여 회원을 대표하는 202명 대의원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치과계도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된 가운데 회원 및 국민과 거듭나는 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다지는 시간이 됐다. 서치대상은 강남구 차혜영 회원, 치과의료봉사상은 가톨릭치과의사회 진료봉사단(회장 라운영)이 각각 수상했다.

POSTSCRIPT BY THE STAFF



최병갑 공보위원

윤은희 공보위원

장세영 공보위원

장정미 공보위원

최병갑 공보위원 ■■■■■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지금, 환자분의 입장에서 임플란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무더위에 좋은 잡지를 위해 탈고에 애쓰신 여러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치과 임상에서 유용하게 읽히시면 기쁘겠습니다.

윤은희 공보위원 ■■■■■ 즐거운 치과생활을 만드는 과정은, 기나긴 여행을 계획하고 실천하여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여행을 떠나고 한 권의 책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구요.

이번 호부터 연 2회 발간으로 바뀌면서 내용도 치과 내원 환자분들이 더 친숙하게 보실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매일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에 그분들과 더불어 즐거운 치과생활을 할 수 있을 기원해 봅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영 공보위원 ■■■■■ 몇 달간의 진통으로 빛을 보게 될 '즐거운치과생활'을 생각하니 가슴 뻐뻐함을 느낍니다. 또 하나의 '즐치'를 탄생시킨 최영림이사님, 장정미·윤은희·최병갑 공보위원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동고동락을 함께하신 김기자님, 최기자님, 리즈디자인과도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미력이나마 일조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거듭날 즐거움을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정미 공보위원 ■■■■■ 3명의 인부가 땀을 흘리며 벽돌을 쌓고 있었다.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자 한 명의 인부가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벽돌 쌓는 것이 안 보여!" 그러자 다른 인부가 대답했다 "커다란 성을 짓는대요"라고. 마지막 인부에게 묻자 그는 환한 웃음으로 "나는 지금 대성당을 짓고 있어요"라고 기뻐했다. 대성당을 짓는 마음으로 한 장의 벽돌을 올려놓았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안유정 기자, 김영희 기자, 최병갑 공보위원, 최영림 공보이사, 윤은희 공보위원, 장세영 공보위원

EDITOR'S NOTE

가을 겨울호를 만들며 분주했던 마음을 식히느라 자유로에 접어드니, 무궁화가 길가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달리는 창 밖으로 스치는 연보랏빛에 기분이 한층 상쾌해졌습니다.

무궁화는 관목이기에 혼자 있을때 보다, 역시 무리지어 핀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스위스의 작은 마을을 산책하다 우리의 무궁화가 피어있던 어느 담장앞에서 반가움에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감회에 젖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또 다른 마을에선 마당 하나 가득 다양한 꽃을 키우는 분을 보았는데 무궁화도 탐스럽게 피어있었고, 장미 꽃밭 사이로 특유의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것에 대한 신선한 느낌과 발견이었습니다.

매년 1회 발간하던 즐거운 치과생활을 2회로 늘이면서 가을 겨울호를 준비했는데 보편성과 새로움의 조화를 추구해 보았습니다.

즐치 팀원들과 공보위원님들의 아이디어와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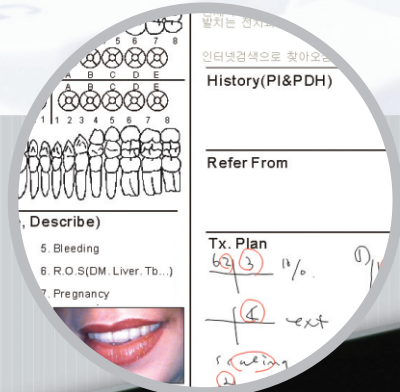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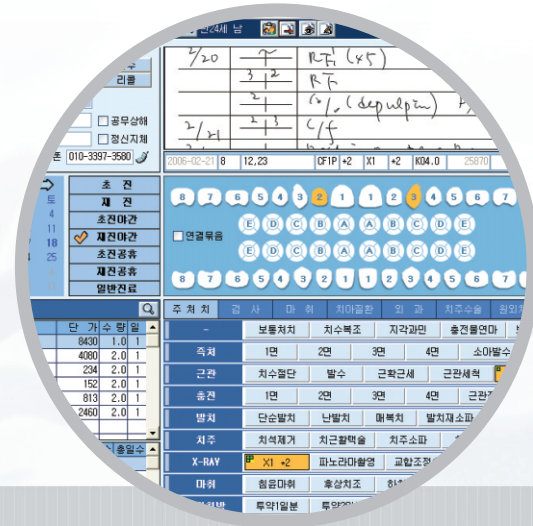
모두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공보담당이사 최 영 림

빠르고 간편한 전자차트 AndwinEMR

- 환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분명한 설명
- 진료계획에 대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 병원내 의료진간의 신속한 환자정보 공유
- 종이차트를 찾는 불편함 해소 및 대기시간 단축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9 SJ테크노빌 14층
TEL: (02)3397-3580 FAX: (02)3397-0460
www.andwin.co.kr

대구: (053)752-1216 부산: (051)759-6491 창원: (055)275-3513
광주: (062)366-5120 울산: (052)266-5114